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195호 【루계 제24973호】 주체104(2015)년 7월 14일 (화요일)

위대한 김정은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락랑위생용품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락랑위생용품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김양건동지, 리재일동지, 김여정동지, 조용원동지가 동행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현지에서 공장의 일군들이 맞이하였다.

락랑위생용품공장은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에 따라 2012년 4월에 조업한 현대적인 위생용품생산기지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락랑위생용품공장에 오니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고 12월7일공장에 새로 건설한 위생용품분공장을 돌아보던 날이 되새겨진다고 하시면서 쉬임없이 쏟아져나오는 각종 위생용품들을 보시고 우리 인민들과 군인들에게 질좋은 위생용품들을 공급해줄수 있게 된것이 그리도 기쁘시여 환하게 웃으시던 장군님의 자애로운 영상이 떠오른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락랑위생용품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몸소 여러가지 위생용품견본들도 보내주시고 위생용품공장을 건설하도록 은정깊은 조치를 취해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인민사랑을 높은 생산성과로 길이 전해가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제품진렬실, 위생용품생산직장, 포장실, 과학기술보급실 등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공장의 생산실태와 경영활동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락랑위생용품공장에서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인민들과 군인들의 생활에 절실히 필요한 위생용품생산에서 성과를 이룩하고있는데 대하여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락랑위생용품공장에서 생산하고있는 위생용품들의 질이 높다고 하시면서 이 공장 제품들에 대한 사용자들의 반영이 좋다는데 이런 보고를 받을 때면 정말 기쁘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생용품에 대한 수요는 날로 높아가고있다고 하시면서 공장에서 질좋은 위생용품들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고 지시하시였다.

공장에서는 전반적인 생산공정의 통합생산체계를 확립하고 경영전략, 기업전략을 바로세우며 원료, 자재를 책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실속있게 벌림으로써 위생용품생산을 정상화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생산공정들에서 표준조작의 원칙을 철저히 지키고 설비관리를 책임적으로 하며 생산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부단히 높임으로써 제품의 질보장에서 편파성을 없애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제품의 위생안전성을 보장할수 있게 생산현장의 무균화, 무진화를 더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며 제품포장을 자동화함으로써 손로동을 극력 줄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공장에서 생산하고있는 위생용품들에 대한 사용자들의 반영이 좋을수록 그들이 무엇을 더 요구하는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인민들과 군인들이 좋아하는 위생용품의 가지수를 늘이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상표도안을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되면서도 고상하고 문화성있게 잘 만들며 상품포장방법도 더욱 개선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우리 인민들과 군인들에게 더 좋은 위생용품을 안겨주시기 위하여 마음써오시였다고 하시면서 락랑위생용품공장은 장군님께서 그처럼 심려하시던 문제를 덜어드리는 공장, 자신께 큰 도움을 주고있는 애국공장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락랑위생용품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위생용품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킴으로써 공장을 인민의 사랑을 받고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공장으로 되게 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락랑위생용품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나라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끊임없는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며 로고와 심혈을 바쳐가고계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대한 고마움에 솟구치는 격정을 누르지 못하면서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과 당정책을 결사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인민생활향상에 적극 기여할 불타는 결의에 넘쳐있었다.

본사정치보도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여러 나라에서 보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3일부터 7일까지의 기간에 여러 나라에서 보도하였다.

일본의 교도통신은 김정은제1위원장께서 평양남새과학연구소를 현지지도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조선인민을 하루빨리 유족한 식생활의 향유자로 되게 하려는것은 조선로동당의 확고한 결심이라고 하시였다고 전하였다.

나이제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 전국위원회와 민주꽁고주체사상연구 전국위원회 인터네트홈페지들, 도이췰란드반제연단 인터네트홈페지 《현지지도소식들》도 우와 같은 소식을 올렸다.

나이제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 전국위원회 인터네트홈페지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새로 건설한 김책공업종합대학 자동화연구소를 현지지도하신 소식을, 이란신문 《이란 뉴스》와 네팔 써거르마타TV방송은 완공된 평양국제비행장 항공역사를 현지지도하신 소식을 보도하였다.

민주꽁고, 도이췰란드, 네팔의 출판보도물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진문헌들을 모시였다.

*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2일부터 4일까지의 기간에 여러 나라에서 보도하였다.

로씨야의 따쓰통신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령도자께서 새로 건설한 김책공업종합대학 자동화연구소를 현지지도하시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은령도자께서는 연구소운영에 필요한 설비들과 륜전기재들을 현대적인것으로 갖추어줄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연구소건설에서 혁명적군인정신을 발휘한 군인건설자들의 위훈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일본의 교도통신은 김정은제1위원장께서 김책공업종합대학 자동화연구소를 시찰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연구소가 최첨단연구기지로서의 체모를 완벽하게 갖추었다고 만족을 표시하시였다고 보도하였다.

민주꽁고주체사상연구 전국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련대성 브라질위원회 인터네트홈페지들, 도이췰란드반제연단 인터네트홈페지 《현지지도소식들》도 같은 소식을 올렸다.

인도네시아의 인터네트신문 《르몰》, 네팔신문 《아르판》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완공된 평양국제비행장 항공역사를 현지지도하신 소식을 게재하였다.

브라질, 도이췰란드의 인터네트홈페지들과 인도네시아, 네팔신문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진문헌들을 모시였다.

*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6월 28일부터 7월 1일까지의 기간에 여러 나라에서 보도하였다.

일본의 교도통신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사회주의농촌문화건설의 본보기, 기준으로 천지개벽된 평양시 사동구역 장천남새전문협동농장을 현지지도하신데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은제1위원장께서 평양의 남새전문협동농장을 시찰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농장이 21세기의 본보기, 표준으로 전변되였다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새로 건설된 온실 등을 돌아보시였다.

그이께서는 시주변 농장들을 잘 꾸리기 위한 사업을 계획적으로 밀고나가야 한다고 지시하시였다.

나이제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 전국위원회와 민주꽁고주체사상연구 전국위원회 인터네트홈페지들, 도이췰란드반제연단 인터네트홈페지 《현지지도소식들》도 이 소식을 올렸다.

도이췰란드의 인터네트홈페지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진문헌들을 모시였다.

세네갈신문 《러 뽀뿔래르》, 뛰르끼예신문 《싸바흐》, 기네 국내, 국제방송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완공된 평양국제비행장 항공역사를 현지지도하신 소식을 전하였다.

본사기자

백두산절세위인들의 태양상과 영상을 형상한

모자이크벽화를 여러 단위에 모시였다

백두산절세위인들의 태양상과 영상을 형상한 모자이크벽화가 룡수탄광과 천마광산, 봉화화학공장, 창도군 대백리, 이천군 송정리, 안변군 사평리에 모셔졌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룡수탄광을 믿음직한 석탄생산기지로 꾸려주시기 위하여 로력과 자재, 설비들을 우선적으로 풀어주시였으며 인민경제계획을 지표별로 수행하였을 때에는 감사도 보내주시였다.

천마광산에는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광산을 찾으시여 나아갈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였으며 선군혁명령도의 길을 이어가시는 그 바쁘신 속에서도 광산의 면모를 새롭게 일신시키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신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사적이 뜨겁게 아로새겨져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갈대와 잡초만이 무성한 곳에 몸소 나오시여 봉화화학공장의 터전도 잡아주시였으며 어버이장군님께서는 로동자들에게 뜨거운 사랑과 은정을 돌려주시였다.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현지지도의 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신 절세위인들의 현명한 령도밑에 창도군 대백리와 이천군 송정리는 사회주의문화농촌으로 훌륭히 전변되게 되였다.

룡수탄광과 천마광산, 봉화화학공장, 창도군 대백리, 이천군 송정리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절세위인들에 대한 열화같은 충정의 마음안고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태양상을 형상한 모자이크벽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를 자기들의 고장에 정중히 모시였다.

안변군 사평리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도 위대한 수령님들을 주체의 태양으로 천세만세 높이 우러르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를 이룩해나가려는 드팀없는 신념과 의지를 안고 혁명의 성산 백두산에 오르시여 끝없이 륭성번영할 주체조국의 앞날을 확신하시는 천출위인들의 숭엄한 영상을 형상한 모자이크벽화를 모시는 사업에 온갖 지성을 다 바치였다.

모자이크벽화준공식이 해당 단위들에서 진행되였다.

본사기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 령

제569호 주체104(2015)년 7월 9일

조국해방 일흔돐과 조선로동당창건 일흔돐을 맞으며

대사를 실시함에 대하여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조선속도창조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며 주체혁명의 새시대를 빛내여가는 장엄한 진군길에서 우리 군대와 인민은 조국해방 일흔돐과 조선로동당창건 일흔돐을 뜻깊게 맞이하게 된다.

우리 당과 조국의 70년 력사는 백두산절세위인들의 현명한 령도밑에 전체 군대와 인민의 일심단결된 위력으로 세기적인 기적과 변혁을 창조하여온 위대한 승리의 력사이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시고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 이끌어오신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빛나게 계승해나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천만군민이 당과 사상과 뜻, 운명을 같이하는 불패의 혁명대오로 굳게 뭉쳐지고 우리 조국은 백두산대국으로 그 존엄과 위용을 만방에 떨치고있다.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인민사랑의 정치를 구현하여 혁명의 천하지대본인 일심단결을 반석같이 다지고 사회주의강성국가를 일떠세우려는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확고부동한 의지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조국해방 일흔돐과 조선로동당창건 일흔돐을 맞으며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조국해방 일흔돐과 조선로동당창건 일흔돐을 맞으며 조국과 인민앞에 죄를 짓고 유죄판결을 받은자들에게 대사를 실시한다.
2. 대사는 주체104(2015)년 8월 1일부터 실시한다.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과 해당 기관들은 대사로 석방된 사람들이 안착되여 일하고 생활할수 있도록 실무적대책을 세울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평 양

지방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로력적성과로 맞이하자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에 필요한 세멘트를 최우선적으로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와 순천세멘트련합기업소에서

주체혁명의 성지 백두대지를 더욱 빛내이는데 이바지하게 될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을 다그쳐 끝낼데 대한 당의 전투적호소를 피끓는 심장마다에 새겨안은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와 순천세멘트련합기업소의 로동계급이 지방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앞두고 전투장마다에서 생산돌격전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완공의 날을 하루빨리 앞당기는데서 자기들이 맡은 임무의 중요성을 깊이 자각한 이들은 설비관리, 기술관리에 큰 힘을 넣고 내부예비를 적극 탐구동원하면서 증산투쟁에 드센 박차를 가함으로써 6월까지 계획된 세멘트를 어김없이 생산보장하였으며 7월에 들어와서도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 건설용세멘트를 최우선적으로 실어보내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올해에 백두의 혁명정신과 기상으로 적대세력들의 도전과 책동을 단호히 짓부시고 사회주의수호전과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역에서 승리의 포성을 높이 울려 조국해방과 당창건 일흔돐을 혁명적대경사로 빛내여야 하겠습니다.》

굴지의 세멘트생산기지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에서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을 지닌 애국충정의 불길이 활화산마냥 강렬하게 분출하고있다.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은 백두산아래 첫 동네에서부터 로동당만세소리, 사회주의만세소리가 더 높이 울려퍼지게 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임을 명심한 상원의 로동계급이 결사관철의 투쟁기풍으로 총진군의 앞장에서 새로운 비약의 열풍을 세차게 일으켜나가고있다.

이곳 련합기업소에서는 연료와 원료보장을 확고히 앞세우면서 지난해에 새로 개건한 1호생산계렬과 광석생산기지를 비롯하여 모든 생산공정을 만가동, 만부하로 돌리기 위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짜고들어 모든 직장들에서 생산과제를 어김없이 수행하도록 하고있다. 특히 세멘트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이고 최고생산년도수준을 또다시 강행돌파하기 위한 투쟁에 불을 지폈다.

상반년 인민경제계획을 빛나게 완수하는데 크게 기여한 소성직장과 세멘트직장의 로동계급이 교대간 사회주의경쟁의 불길높이 최고생산년도수준을 돌파하기 위한 증산돌격전에 더욱 드센 박차를 가하고있다.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치렬한 생산전투속에 1호소성로와 2호소성로가 만가동, 만부하의 동음을 힘차게 울리고 분쇄기를 비롯한 각종 설비들이 기운차게 돌아가며 매일 계획보다 많은 량의 세멘트를 쨍쨍 생산해내고있다.

질좋은 세멘트를 더 많이 생산하는데서 자기들이 맡고있는 임무의 중요성을 깊이 자각한 중앙조종실의 조종사들은 전반적인 공정들의 운영을 과학기술적으로 하여 세멘트의 질을 높이면서도 생산량을 부쩍 늘일수 있게 하고있다. 이에 뒤질세라 조합원료직장과 원료직장, 출하직장, 전기직장, 상원석회석광산과 삼청광산, 화천탄광을 비롯한 련합기업소의 모든 일터에서 새로운 조선속도창조투쟁의 북소리가 더 높이 울리고 련일 눈부신 실적이 기록되고있다.

특히 청년강국의 대들보들인 련합기업소의 미더운 청년동맹원들이 화차수리정비에서 나서는 과제들까지 스스로 도맡아 해제끼며 백두전역에 세멘트를 제때에 최우선적으로 생산보장하기 위한 투쟁에서 한몫 단단히 하고있다. 련합기업소의 과학자, 기술자들도 12월15일품질메달을 수여받은 세멘트의 질을 더욱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고 고질세멘트의 국산화실현과 원료, 반제품, 완제품생산의 과학적인 실시간분석체계확립에서 거둔 성과들을 공고히 하며 발전하는 시대적요구에 맞게 자동화설비들을 갱신하고 그에 따르는 생산조종방법들을 완성하기 위한 사업에 탐구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쳐나가고있다.

순천세멘트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백두의 칼바람에 투쟁의 돛을 달고 최대의 진격속도로 질풍같이 내달리고있다.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불멸의 령도자욱을 걸음걸음 뜨겁게 되새기며 백두전역으로 달려간 이곳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청년돌격대원들에게 성의껏 마련한 지원물자를 안겨주고 건설현장에서 필요한 세멘트를 제때에 생산보장하기 위한 방도들도 진지하게 탐구하였다.

실력이 있어야 앞채를 멜수 있다는것을 자각한 이곳 련합기업소의 책임일군들이 필요한 중요생산설비를 자체의 힘과 기술로 제작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면서 화선의 기관차가 되여 로동자들과 함께 불꽃튀는 생산전투를 벌리고있다.

소성직장과 세멘트직장, 조합원료직장을 비롯한 모든 직장의 로동계급이 백두대지에 대대손손 물려줄 조국의 만년재부를 일떠세움으로써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기어이 관철하자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애국충정의 호소에 심장의 피를 펄펄 끓이며 증산돌격전의 분과 초를 자랑찬 위훈으로 수놓아가고있다. 이들은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장에 매달 많은 량의 세멘트를 어김없이 생산보장한 기세를 늦추지 않고 7월에 들어와 전달보다 1.4배이상의 세멘트를 보내줄 높은 목표밑에 공격전의 도수를 더욱 높이고있다.

전화의 나날 군자리로동계급처럼 뼈를 깎고 피를 바쳐서라도 백두대지에 만년언제를 하루빨리 일떠세우려는 사생결단의 각오를 가지고 세멘트생산보장전투에 산악같이 일떠선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와 순천세멘트련합기업소 로동계급의 불보다 뜨거운 애국충정과 헌신적인 로력투쟁에 의하여 생산성과는 나날이 더욱 확대되고있다.

본사기자 정순성

기본갱도영구화의 튼튼한 토대 마련

덕천지구탄광련합기업소 탄광부재공장에서

뜻깊은 10월의 대축전장을 빛내이기 위한 총공격전의 불길이 날을 따라 세차게 타오르는 속에 덕천지구탄광련합기업소 탄광부재공장이 종전에 비해 3배의 세멘트를 생산할수 있게 개건되여 련합기업소아래 탄광들의 기본갱도를 영구화할수 있는 튼튼한 토대가 마련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백두의 혁명정신과 창조적투쟁으로 마련한 자랑찬 선물을 안고 10월의 대축전장에 떳떳이 들어서야 합니다.》

일찌기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련합기업소탄광들의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던 나날에 기본갱도들을 영구화할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탄광들에서 기본갱도를 영구화하면 갱도를 보수하는 로력이 필요없을뿐아니라 로동의 안전성을 보장하고 동발나무를 적게 쓰면서 석탄생산을 더욱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다.

련합기업소당위원회의 적극적인 지도밑에 리영동동무를 비롯한 탄광부재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생산능력을 종전의 3배로 끌어올려 년간에 수천m의 기본갱도영구화를 위한 블로크생산에 필요한 세멘트를 생산보장할 높은 목표를 세우고 산악같이 떨쳐나 개건공사에 달라붙었다.

종전의 많은 설비들을 해체하는것과 함께 새로운 설비들을 제작, 조립해야 하는 어려운 개건공사이지만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예비와 가능성을 총동원하여 통이 크게 일판을 벌려나갔다.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서로의 창조적지혜를 합쳐 가치있는 기술혁신안을 받아들이고 스스로 두몫, 세몫의 일감을 맡아 수행하는 애국적헌신성을 높이 발휘하였다.

합리적인 건설공법으로 구조물공사를 추진하는것과 함께 기발한 착상으로 콘베아와 천정기중기를 비롯한 많은 설비를 자체로 빠른 기간에 제작하였으며 콤퓨터를 리용한 원료계량과 배합, 소성 등 여러 공정을 실정에 맞게 현대화하였다.

결과 석달동안에 설비조립이 끝나는 성과가 이룩되였으며 이 과정에 로동자들이 새로운 공정을 충분히 파악하고 빠른 기간에 생산을 정상화할수 있게 되였다.

공장에서는 생산능력이 3배로 올라가는데 맞게 원료보장대책도 면밀히 세워놓았다.

주원료인 석회석원천이 공장곁에 있는 조건에서 그 질을 높이기 위해 막장을 새롭게 전개하였으며 자체탄광을 개발하여 종전의 세멘트에 비해 그 강도를 2배나 올릴수 있게 하였다.

부원료도 주변에 흔한 대용원료를 리용하도록 하여 생산을 정상화할수 있는 전망도 열어놓았다.

종전과 같은 전력을 소비하면서 강도높은 세멘트를 더 많이 생산하여 련합기업소아래 탄광들의 기본갱도영구화를 적극 다그칠수 있게 한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지방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앞두고 생산의 동음을 높이 울리면서 공장안팎도 보다 훌륭히 꾸리기 위해 노력하고있다.

본사기자 정경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가

라오스인민민주주의공화국 고위군사대표단과 세계관광기구대표단을 만났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는 13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의례방문하여온 라오스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비서인 쌩누안 싸이냐랏 국방상을 단장으로 하는 라오스인민민주주의공화국 고위군사대표단을 만나 친선적인 분위기속에서 담화를 하였다.

석상에서 국방상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쭘말리 싸이냐쏜주석이 보내는 인사를 전하여드릴것을 부탁하였다.

김영남동지는 이에 깊은 사의를 표시하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쭘말리 싸이냐쏜주석에게 보내시는 인사를 전하여줄것을 부탁하였다.

국방상은 드센 담력과 배짱으로 나라의 자주권을 수호하고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만방에 떨쳐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존경하게 된다고 말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건강하시여 조선인민의 투쟁을 승리에로 령도하시기를 축원한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체류기간 승리에 대한 신심에 넘쳐 투쟁하고있는 조선의 군대와 인민의 모습을 목격하고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하면서 그는 라오스와 조선사이의 친선협조관계가 더욱 강화발전되리라는 굳은 확신을 표명하였다.

여기에는 방관복륙군중장을 비롯한 조선인민군 장령, 군관들과 폰캄 인타부아리 주조 라오스인민민주주의공화국 특명전권대사가 참가하였다.

*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는 13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의례방문하여온 탈레브 리파이 총서기를 단장으로 하는 세계관광기구대표단을 만나 따뜻한 분위기속에서 담화를 하였다.

여기에는 조성걸 국가관광총국 총국장, 관계부문 일군들이 참가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가 라오스인민민주주의공화국 고위군사대표단을 만났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가 세계관광기구대표단을 만났다.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쯔르나고라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였다

뽀드고리짜

쯔르나고라 대통령

필리쁘 부야노위츠각하

나는 쯔르나고라 국경절에 즈음하여 당신과 귀국정부와 인민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나는 이 기회에 우리 두 나라사이의 관계가 자주권의 호상존중과 평등, 호혜의 원칙에서 좋게 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 영 남

주체104(2015)년 7월 13일 평 양

혁명사적을 통한 교양을 활발히

구성방직공장 초급당위원회에서는 혁명사적을 통한 교양사업을 활발히 벌려 당원들과 로동자들이 위대한 수령님들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을 안고 수령님들의 유훈관철에 적극 떨쳐나서도록 하고있다.

초급당위원회는 공장에 꾸려진 혁명사적교양실참관을 직장, 부서별로 정상적으로 조직하여 한평생 인민의 행복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위대성을 당원들과 로동자들이 깊이 체득하도록 하고있다.

초급당위원회는 당초급선전일군들을 발동하여 공장에 깃든 위대한 수령님들의 혁명업적을 당원들과 로동자들의 가슴마다에 깊이 심어주기 위한 사상교양사업도 적극 벌리도록 하고있다.

혁명사적을 통한 교양사업을 활발히 벌려나가는 나날에 공장의 당원들과 로동자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혁신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키게 되였다.

로농통신원 김학화

터무니없는 모략과 날조는 자기 시대를 다 산자들의 말기증상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정책국 대변인담화

최근 우리 공화국의 존엄높은 위상을 허물어보려고 서푼짜리 음모와 모략에 매달려 현실을 오도하고 여론을 매도해대며 세상을 어지럽히는 미국과 그 하수인들의 히스테리적광기가 극도에 달하고있다.

우리의 과학연구 및 생산기지인 평양생물기술연구원을 《맹독성탄저균의 최신생산시설》로, 《민간업체로 위장한 생물무기공장》으로 무작정 둔갑시키고있는것이 그 대표적인 실례이다.

미국의 모략가들은 평양생물기술연구원의 공개된 대다수 현대적장비들이 1980년대 유럽련합 40여개국으로 구성된 그 무슨 《호주그룹》에서 규제한 생화학물질수출통제품들이며 연구원은 이라크와 이전 쏘련의 군사용생물무기공장과 다름없는 《정규적이고 군사적사용이 가능한 탄저균생산시설》인것처럼 락인해보려고 갖은 술책을 다 꾸미고있다.

지어 세계적으로 발전된 몇개 나라들만이 생산기술을 독점하고있다는 우리의 《첨단생물기술제품》이 곧 《탄저균최신병기》를 의미한다는 황당무계한 궤변까지 늘어놓고있다.

나중에는 우리 평양생물기술연구원에서 생산하고있는 생물농약이 구제하기 힘든 각종 진드기류를 포함한 병해충들을 거의 100% 죽일수 있다고 한것은 《인구밀집지역에 10㎏만 살포해도 최대 90만명까지 사망시킬수 있는 탄저균을 념두에 둔것》이며 《〈탄저균시설〉의 의도적로출은 북이 미국과 남조선을 위협하는 행보》라고까지 꺼리낌없이 줴쳐대고있다.

그 리유로 지난 5월말 극비밀리에 우리 민족을 세균전의 대참변속에 몰아넣으려는 제놈들의 천인공노할 탄저균반입흉계가 만천하에 폭로된 다음에 우리가 생물기술연구원을 공개했기때문이라는 터무니없는 랑설까지 안받침해대고있다.

원래 강도에게는 모든것이 흉기나 족쇄로 보인다고 하였다.

더우기 죄진 놈은 길섶의 말라버린 풀대도 제 목을 조이려드는 올가미로 착각하고 전률하며 아우성친다 하더니 정말 그른데 없다.

우리에게 천추만대를 두고도 씻지 못할 만고대죄를 지은 날강도 미국이 눈앞에 펼쳐진 엄연한 현실마저 한사코 부정해대며 대조선적대시광기를 부려대고있는것은 모략과 날조가 그들의 체질로 굳어진 악습이고 생존방식이기때문이다.

미국의 죄악에 찬 행적에는 정의를 부정의로 짓누르고 진리를 허위로 가리워보려는 파렴치한 정치사기극과 음모와 날조로 세상을 기만해보려는 철면피한 광대놀음들이 수없이 기록되여있다.

우리의 평화적인 인공지구위성발사를 《대륙간탄도미싸일발사》라고 무작정 오도해대고 테로를 부추기는 악질반동영화를 제작한탓에 《미합중국이 당한 초유의 참상》을 빚어낸 《쏘니 픽쳐스 해킹》사건을 《북소행》으로 몰아댄것도, 완전성공한 우리 전략잠수함의 탄도탄수중시험발사를 《서투른 사진조작》이고 《운반선에서의 발사》라고 헐뜯다 못해 그것을 《확증》하는 날조된 위성사진까지 내돌리다가 개코망신당한것도 세상이 다 아는 일이다.

침략야욕을 채우기 위해서라면 만사람에게 공인된 진실도 허위로 조작하고 없는것도 날조해내여 전쟁을 도발하고 모략적인 수법으로 주권국가의 내정에 서슴없이 간섭하여 류혈과 분쟁의 참극을 빚어내는것이 바로 날강도 미국이다.

가관은 모략과 날조로 일관된 어리광대극의 특급주역으로 오바마를 비롯한 백악관의 거물들이 세상부끄러운줄도 모르고 뻐젓이 나서고있는것이다.

올해 정초부터 대대적인 심리모략에 따른 《비례성대응》과 《외부정보류입》에 의한 《북내부전복》에 대하여, 《붕괴유도》에 대하여 고아댄 오바마는 지금이 시각도 게거품을 물고 보다 강도높은 새로운 대조선 《제재》를 선동해대고있다.

그에 따라 어제는 우리를 《대량살상무기전파국》, 《주요돈세탁우려국》으로, 오늘은 《테로지원국》, 《최대인권유린국》으로, 그다음에는 《생물무기제작국》으로 정해놓고 해괴한 《제재법안》들을 련이어 빚어내고있다.

웃굚에서 터진 어지러운 탁류가 아래굚물을 통채로 흐려놓는다고 백악관의 대조선모략각본을 받아문 미행정부의 장, 차관들과 상, 하원 국회의원들, 군부의 어중이떠중이들이 마이크와 지면을 차지하고 새로운 대조선 《제재안》을 만들기 위한 서툰 연기에 시간가는줄 모르고있으며 몇푼의 딸라에 현혹된 보수어용매체들이 모략극의 광고판구실을 해대고있는것이 볼썽사나운 미국의 현 몰골이다.

미국의 광기어린 모략광대놀음에 열기가 뻗친 박근혜일당도 이에 뒤질세라 헤덤벼치고있다.

입버릇처럼 우리의 정정당당한 병진로선에 대해 《실현불가능》하다고 떠들어대고 그 누구의 삶에 대해 주제넘게 주절대던 박근혜일당이 요즘에는 《극도의 공포정치》요, 《체제불안정》이요, 《고위급인물들의 대량탈북》이요 하며 온 겨레를 경악케 하는 모략과 날조에 기승을 부리고있다.

원래 모략과 날조, 허위와 불의는 미국상전의 모든 행태를 그대로 본따고있는 괴뢰들에게 있어서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천안》호사건과 연평도포격전, 《농협》금융콤퓨터망마비사건, 《3.20해킹공격사건》, 《GPS전파교란사건》, 무인기사건 등의 《북소행》설이 그러했고 세계 어느 나라 비행대들이나 다 진행하는 도보비행훈련까지 《장난감비행기놀이》라고 비방해댄것을 비롯하여 북남관계사의 갈피들을 어지럽힌 그 모든것을 꼽자면 끝이 없다.

입만 벌리면 독을 내뿜는 독사도 무색할 정도로 대결악담의 능수인 박근혜와 넝마를 걸친 허수아비마냥 초보적인 주견과 속대도 없는 청와대앵무새로 재잘거리는 윤병세, 홍용표, 한민구따위들에게 어느 누구도 귀를 강구지 않으리라는것은 분명하다.

오죽하면 남조선언론들까지 박근혜일당은 동족에 대한 적대감이 골수에 배다나니 《북의 나무나 수풀도 곱게 보지 않는 이질화된 족속들》이라고 평하겠는가.

미국의 개우리에서 생존해가는탓에 싫든좋든 던져주는 빵부스레기를 주어먹고 부추기는대로 짖어대야만 명줄이 붙어있을수 있는것이 남조선괴뢰들에게 주어진 숙명이다.

모략과 날조에 환장이 된 나머지 대결광신자들은 감히 하늘의 태양에까지 삿대질하려는 무엄한 행위도 서슴지 않고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이 가장 신성시하고 목숨보다 더 귀중히 여기는것은 우리의 최고존엄이다.

쏟아져내리는 억만줄기의 광휘로운 태양의 눈부신 빛발을 과연 손바닥으로 막아낼수 있단 말인가.

민중을 기만하여 정권을 찬탈하고 모략과 날조로 추악한 잔명을 부지해오고있는 박근혜일당의 골통으로는 십년, 백년이가도 우리 천만군민이 무엇때문에 자기 운명의 하늘을 목숨으로 떠받드는지 절대로 리해하지 못할것이다.

이번 기회에 전대미문의 반공화국모략극의 둘러리역을 놀아대며 분주탕을 피우는 보수언론매체들에도 엄중히 경고한다.

진정한 의미에서 언론은 정의를 수호하고 시대를 선도하며 공정한 여론을 대변해야 한다.

이 본래의 사명을 버리면 그때는 벌써 반역《정권》의 시녀로, 너절한 매문집합체로 굴러떨어져 력사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된다.

정의와 진리를 거세해보려는 모략과 날조는 시대를 다 산자들의 영구불치의 말기증상이며 최후의 몸부림에 지나지 않는다.

극도의 적대와 증오에 쩌들어 모략과 날조로 시대를 역행하던 악명높은 히틀러가 무덤같은 지하실에서 비참하게 명줄을 끊어야 했고 도죠가 교수대의 올가미를 목에 걸어야 했으며 오늘은 날조와 모략에 이골이 난 오바마 미행정부가 음산한 저승길을 재촉하고 박근혜일당이 그 뒤를 따르고있다.

가뜩이나 죄많은 미국을 구제불능의 함정으로 끌고가는 오바마와 미행정부에 권유하고싶다.

비록 때늦은감은 있어도 현실을 내다보아야 할 눈거죽은 내리감고 어지러운 소음에만 귀를 열어놓지 말아야 하며 삐뚤어진 혀를 제멋대로 놀리지 말아야 한다.

천귀가 한눈을 대신 못한다 하였다.

지금 당장이라도 새로운 대조선 《제재결의안》을 발기하고 채택하느라 목이 쉬고 제풀에 지쳐버린 국회의 상, 하원 의원 535명과 행정부의 장, 차관얼간이들을 모두 거느리고 우리 나라에 찾아오라.

그래야 진짜 인권이 보장된 사회가 어떤것인지 한가지라도 정확한 표상을 가질수 있다.

무료교육권과 무상치료권, 세금없는 생활권이 법적으로 담보되고 망치를 쥐고 창조의 동음을 울리는 로동자와 호미를 들고 전야를 가꾸는 농민들이 나라의 정사를 다루는 《국회의원》이 되고 총리도 상도 되는 희한한 참세상을 직접 목격하게 될것이다.

그 기회에 첨단을 돌파한 평양생물기술연구원의 신비스러운 모습도 보게 될것이다.

그러면 험악한 인간말세의 시궁창에서 백화만발한 인간의 지상락원을 헐뜯어댄것이 부끄러워 낯을 붉히고 잘못 놀린 혀가 돌처럼 굳어져버릴것이다.

박근혜도 미국상전이 끼워준 돋보기로 세상을 내다보고 쥐여준 대결각본대로 놀아대기에 앞서 불신과 반목으로 이지러진 속통을 바로잡고 한지맥으로 잇닿은 우리 공화국의 눈부신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

미국과 괴뢰들은 이제라도 똑바로 알아야 한다.

그 어떤 모략과 날조로도 자주시대의 거창한 흐름을 막을수 없으며 력사의 궤도를 돌려세울수 없다.

오히려 이미 기울어진 백악관과 청와대의 암울한 정사에 그 무엇으로도 막을수 없는 최후치명타를 안기게 할뿐이다.

미국과 박근혜일당이 매달리는 모략과 날조는 상대에 대한 초보적인 파악도 하지 못한 서푼짜리 광대극으로서 그 파산은 명백하다.

인민대중의 심장속에 깊이 뿌리내린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는 천만년세월이 흘러도 끄떡없다.

시대의 요구를 거스르고 민족의 지향에 도전하며 정의와 진리를 거역하여 우리 공화국의 위상을 허물어보려는자들은 기필코 처절한 대가를 치르게 될것이다.

주체104(2015)년 7월 13일
평 양

기술적담보를 가지고 영농방법을 혁신

문덕군 룡림협동농장 일군들의 사업에서

문덕군 룡림협동농장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이 당의 농업정책과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지어 정보당 수확고를 최대로 높이기 위한 비료주기에 품을 넣고있다. 주목되는것은 일군들이 기술적담보를 틀어쥐고 영농방법을 혁신하여 비료를 적게 쓰면서도 수확고를 훨씬 높일수 있는 전망을 마련해나가고있는것이다. 비결은 어디에 있는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협동농장들에서는 매 영농공정별로 준비를 면밀히 한데 기초하여 시기별영농작업을 제때에 질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당의 농업정책의 요구대로 적은 비료를 가지고 더 많은 알곡을 생산하자면 효과적인 비료주기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질소비료에만 매달리지 않고 린, 카리, 규소비료와 여러가지 미량원소비료를 구색이 맞게 칠데 대한 당의 뜻을 영농실천에 받아들인 농장일군들의 일본새가 그것을 잘 말해주고있다.

비료주기에서 일군들의 많은 관심을 모은것은 자기 고장의 지대적특성과 자연기후조건을 고려하여 실정에 맞게 하는것이였다. 이 농장은 바다의 영향을 많이 받는 고장이다. 그래서 다른 농장들보다 바람이 세게 불고 기온도 낮았다. 또한 농장의 적지 않은 간석지포전들은 토양의 구조적특성으로부터 통기성이 좋지 못하였다. 이런 조건에서 정보당 수확고를 높이는 중요한 방도의 하나는 논벼를 튼튼히 자래우고 뿌리활성을 높이는것이였다. 그러자면 카리와 티탄을 비롯한 여러가지 영양원소들이 들어있는 비료들을 많이 주어야 하였다.

모든 사업을 새롭게 착상하고 혁신적으로 전개해야 말은 일을 책임적으로 수행할수 있다는것을 명심한 농장관리위원장은 이 문제해결에 발벗고나섰다. 우선 구색이 맞는 각종 비료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을 치밀하게 조직하였다. 그에 따라 자기 지방에 흔한 갈탄으로 생산한 후민산소다용액과 아미노산미량원소복합비료 등 각종 영양원소들을 보충할수 있는 비료들을 확보하였다. 다음으로 여러가지 비료들을 논벼생육에 알맞게 주기 위해 배합비률을 바로 정하였다. 이때 질소비료량은 적게 하고 필요한 영양원소들이 들어있는 비료량은 늘이도록 하였다.

계획한 각종 비료를 충분히 확보한 농장에서는 비료주기를 물감장사하듯 짜고들었다. 이때 중시한 문제의 하나가 깊은층비료주기를 실속있게 하는것이였다. 적은 비료로 효과성을 2배이상 높일수 있는 방도이기때문이였다.

농장일군은 이를 위해 각종 비료를 잘 혼합해서 덩어리로 만들어 포기마다 한개씩 묻어주기 위한 방도를 내놓고 실천하였다. 처음에 성형알판을 리용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잘 다져지지 못하면 비료주기를 하는 과정에 쉽게 부스러져 소농기구로 파고 묻어주어야 하기때문에 품이 많이 들었다. 다시 영양단지모판을 만드는 방법으로 해보았는데 이번에는 크기가 서로 달랐고 덩어리는 각이 져서 운반도중에 허실이 많아 포기마다 꼭같은 량을 줄수 없었다.

열정은 사색을 동반하고 사색은 열정을 불러일으켜 지칠줄 모르는 창조적힘을 낳게 하는것이다.

농장관리위원장은 사색을 거듭하는 과정에 덩어리를 둥글게 빚는 기계를 만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술자들과 창조적지혜를 합쳐 성공하였다. 기계로 빚으니 전면적의 매 포기에 줄 량을 빚는데 수십명의 로력이 두달동안에 하던것을 3명이 대신하였다. 결과 각종 영양원소를 포기마다 정확히 주어 층하없이 자라게 함으로써 포기농사의 생활력을 더 높이 발휘할수 있게 하였다. 또한 덩어리가 단단하고 둥글어 소농기구가 없이도 깊은층비료주기를 손쉽게 빨리 할수 있었다.

당정책의 정당성을 말로써가 아니라 실천으로 증명할수 있는 기술적담보를 틀어쥐고 적은 비료로 더 많은 알곡을 생산할수 있는 비료주기방법을 적용한 농장일군들의 일본새는 얼마나 혁신적인가.

본사기자 정영철

효과를 보는 양어장 불장식

덕성군 인동농장에서

덕성군 인동농장에 가면 양어장에 불장식을 하여 쉬운 방법으로 물고기단백먹이를 해결하고있는것을 볼수 있다.

어떻게 되여 이런 양어장이 건설되였는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양어장을 꾸리는것도 주먹치기로 하지 말고 잘 타산해가지고 하여야 합니다.》

두해전 가을 양어를 잘할데 대한 당의 뜻을 높이 받들고 농장에서 양어장건설을 설계할 때였다. 관리위원장과 리당일군이 중시한것은 어떻게 하면 양어장을 실리가 나게 건설하겠는가 하는 문제였다.

지혜를 합치면 방도가 생기는 법이다. 드디여 그들은 양어장을 건설하고 불장식을 하면 단백먹이를 해결할수 있다는데로 합의를 보았다. 불장식을 하면 밤나비를 비롯한 곤충들이 날아들어 그 주위를 돌다가 물에 빠지는데 그것이 곧 물고기단백먹이로 되기때문이였다.

다음날 농장일군들은 양어장건설문제를 구체적으로 토의하였다. 양어장을 건설하는데 필요한 돌은 밭에서 추어낸 돌들을 리용하면 해결할수 있다. 양어못을 판 다음 소형수력발전소에서부터 100여m의 물길을 내자. 그러면 발전기를 돌린 물을 양어에도 효과있게 리용할수 있다. 양어장에 장식등을 설치하되 그 높이를 바로 정해야 한다. …

이런 합의에 이른 일군들은 며칠후 설계가 완성되자 대중을 양어장건설에로 불러일으키였다. 리남일, 박성산동무들을 비롯한 농장일군들이 투쟁하는 대오의 앞장에서 걸린 문제들을 풀어나가면서 새끼물고기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을 따라세웠다.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양어장건설을 완공하고 그 한가운데 정각과 어린이들의 동심에 맞는 조각들을 세웠다. 그리고 기념어, 잉어 등 수만마리의 새끼물고기를 넣은데 이어 불장식을 하였다. 이때 그들은 장식등회전반경을 잘 타산하였다. 그리고 장식등을 양어장의 물면으로부터 수십㎝ 높이에 설치하였다.

양어장에 불장식을 하니 좋은점이 많았다. 5월말부터 10월까지 많은 곤충이 영양가높은 단백먹이로 되였다. 따라서 양어장에 새끼물고기를 넣은 때로부터 1년 6개월 되였는데 마리당 무게가 평균 1.3㎏, 최고 3㎏까지 나갔다. 결과 많은 먹이를 절약하면서 물고기를 길러 세대들에 공급할수 있는 담보가 마련되였다.

그뿐이 아니였다. 그 주변의 포전들은 병해충구제효과를 보았다. 또한 무더운 여름철이면 불야경이 펼쳐지는 양어장이 휴식장소로 되고 겨울철에는 어린이들의 빙상장으로 리용되는것을 비롯하여 여러 측면에서 그 덕을 보고있다.

이 농장의 현실은 일군들이 당의 양어정책관철을 위해 머리를 쓰며 걸린 문제를 앞장에서 풀어나갈 때 농업근로자들이 그 덕을 보게 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본사기자 김창길

박봉주총리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를 비롯한 여러 단위 현지료해

【평양 7월 13일발 조선중앙통신】 박봉주내각총리는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를 현지에서 료해하였다.

총리는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 압연선재가열로가스화공사장과 용광로건설장, 보산제철소 4호회전로건설장을 돌아보면서 시공정형과 자재보장실태 등을 구체적으로 알아보았다.

현지에서 관계부문 일군협의회가 진행되였다.

협의회에서는 우리의 연료에 의거한 압연공정의 주체화실현이 가지는 중요성이 강조되고 련관단위들에서 내화물과 대상설비들을 제때에 생산보장하기 위한 대책이 토의되였다.

이에 앞서 평양남새과학연구소와 대동강자라공장, 대동강과수종합농장을 찾은 총리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유훈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지말씀을 결사관철하여 인민생활향상에 적극 이바지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한편 총리는 여러 건재생산단위들의 생산실태를 현지에서 료해하고 마감건재의 국산화비중을 높일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박봉주총리 평양남새과학연구소 현지료해

실효가 큰 노래해설모임으로

피현은하피복공장 초급당위원회에서는 노래해설모임을 실속있게 진행하여 종업원들이 애국의 열정을 깊이 간직하고 생산을 힘있게 다그치도록 하고있다.

초급당위원회에서는 작업반마다 노래가사를 적은 걸그림들을 갖추어놓고 작업시작전과 쉴참마다 노래들을 배우도록 하고있으며 당초급선전일군들을 발동하여 노래해설모임도 진행하도록 하고있다.

얼마전 노래 《내가 지켜선 조국》에 대한 해설모임때였다.

생산1작업반의 신정옥동무는 이 노래는 우리모두에게 조국수호를 가장 신성하고 영예로운것으로 간직하게 한다고 하면서 우리 로동자들도 조국의 수호자들이라는 자각을 안고 생산전투를 힘있게 벌려나가자고 이야기하였다.

그의 말을 듣고난 작업반원들은 노래를 마음속으로 부르며 생산전투를 힘있게 다그쳐나갔다.

초급당위원회는 모든 작업반들에서 노래해설모임을 현장조건에 맞게 격식이 따로 없이 진행하도록 함으로써 종업원들이 혁명의 노래, 투쟁의 노래를 힘차게 부르며 10월의 대축전장을 향한 총공격전의 진군속도를 부쩍 높여나가도록 하고있다.

로농통신원 백광수

진정을 주어야 마음의 문을 열수 있다

평양무궤도전차수리공장 초급당위원회 사업에서

힘있는 공장!

최근 평양무궤도전차수리공장을 찾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불과 몇해전까지만 해도 수도려객운수국적으로 도와주어야 할 공장, 돌봐줄 대상으로 뒤전에 머물러있던 단위였다. 그러던 공장의 안팎이 때벗이 되였다. 해마다 선군봉화상쟁취를 위한 사회주의경쟁공동순회우승기를 수여받고 인민경제계획도 어김없이 수행하고있다. 비결은 어디에 있는가. 그 답을 우리는 초급당위원회일군들의 사업에서 찾는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조직들은 어머니다운 심정으로 모든 사람들을 품에 안아 따뜻이 보살펴주고 이끌어주어 그들이 당과 끝까지 운명을 같이하며 자기 초소에서 맡은 일을 책임적으로 해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몇해전 새로 임명된 초급당비서 전정택동무의 어깨는 무거웠다.

공장의 실정이 생각했던것보다 어려웠던것이다. 생산은 물론 면모적측면에서도 다른 단위보다 뒤떨어져있었다.

하지만 그는 비관하지 않았다. 대중의 정신력을 잘 발동하면 무슨 일이든지 해제낄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서였다.

그는 절세위인들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과 당문헌학습부터 깊이 하였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묘술은 그 마음속에 있다고 하신 어버이장군님의 교시, 제 마음을 주어야 남의 마음을 얻을수 있다고 하신 명언의 구절구절이 가슴에 새겨졌다.

(정과 사랑으로 종업원들의 마음의 문을 열자!)

이렇게 결심한 그는 대중속에 깊이 들어갔다. 사람과의 사업의 기본형식인 담화로부터 당사업의 첫걸음을 뗐다.

그는 우선 종업원들의 가슴에 제일 맺힌 문제가 무엇인가 하는것을 알아보고 풀어주기 위한 작전을 펼치였다.

전기수리작업반의 로동자로 일하는 김동무의 사업과 생활을 잘 이끌어주어 당초급일군으로 키운것이 그 한 실례로 된다.

성격이 거친것으로 하여 한때 작업반원들은 김동무와 대상하기를 꺼려하였다. 그것이 가정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것을 알게 된 초급당일군은 여러차례 가정방문을 하였다. 다심한 어머니의 심정으로 생활에서 걸린 문제들을 알아보고 제때에 풀어주었다. 그리고 맡은 일에 책임적인 그의 우점을 알고 정과 믿음을 주면서 일자리를 내도록 이끌었다.

그 진정에 고무된 김동무가 성격상결함을 고치고 일에서 성과를 냈을 때에는 대중앞에 내세워주고 널리 소개선전하였다. 그 과정에 김동무는 몰라보게 성장하였으며 당초급일군으로서의 임무도 맡게 되였다.

하회작업반 수리공 최동무를 혁신자로 키우는 과정에 있었던 사실을 통해서도 당일군의 진정이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라는것을 잘 알수 있다.

언제인가 초급당일군은 일 잘하던 최동무가 마력을 내지 못하고있는 사실을 알게 되였다.

그의 얼굴빛을 보고 마음속그늘이 진것을 발견한 초급당일군은 여러번 만나 담화를 하였다. 했으나 그는 좀처럼 속을 주지 않았다. 무슨 사연이 있어서인지 만날 때마다 벙어리처럼 입을 열지 않았다. 벙어리자식의 마음은 어머니도 모른다는 말이 있다. 하지만 열화같은 사랑으로 인민의 행복을 꽃피워가시는 절세위인의 숭고한 뜻대로 일하기 위해 애쓰는 당일군의 진정앞에서 가슴에 맺힌 응어리를 터치지 못할 사람이란 없다.

지난날 떳떳하게 살지 못한 안해의 문제를 내놓기 부끄러워 혼자서 벙어리 랭가슴 앓듯 하던 최동무는 때없이 자기를 찾고 가정방문도 하며 살뜰한 정을 주는 초급당일군의 진정앞에 스스럼없이 가정사정을 터놓았다. 그것을 안 초급당일군은 최동무의 마음속 아픈 상처를 가셔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다. 그의 가정문제를 중대사로 보고 걸린 문제들을 풀어주기 위해 밤길도 수없이 걸었다. 그리하여 떨어져 살던 안해를 끝내 데려왔고 화목한 가정이 되게 하였다.

한때 가공작업반의 한 청년은 잘못 살아온 지난날의 일로 마음속고충을 겪고있었다.

일단 굽은 나무는 펴지 못한다면서 함께 일하던 종업원들도 그를 멀리하고있었다. 그것을 안 초급당일군은 청년과 자주 만나 담화를 하였다. 했으나 들인 품에 비해 좋은 결과를 거두지 못했다. 일하는 과정에 결함이 반복되여 나타났던것이다.

못난 자식을 탓하는 어머니는 없다. 천성적으로 나쁜 사람이 없기때문이다. 문제는 자식이 바른길로 가도록 잘 이끌어주는것이 기본이다. 전정택동무는 사랑하는 자식일수록 눈물을 머금고 채찍을 더 높이 드는 어머니처럼 원칙적으로 그를 교양하였다.

한편 작업반과 청년동맹조직과의 련계밑에 그에게 큰 일감을 맡겨주게 하였으며 사업과 생활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는 당조직이 전적으로 책임지고 풀어주었다.

초급당일군의 참되고 진실한 사랑을 진정으로 받아안은 그 청년은 잘못 산 지난날과 결별하고 인생의 새 출발을 하였다. 얼마후에는 혁신자로 자랐다.

혁신자로 소문난 공장의 처녀, 총각이 일생을 같이하려고 약속했다는것을 알고 텔레비죤수상기와 가정용품을 일식으로 마련해준 사실, 앓고있던 제관작업반 용접공 리동무가 빨리 병을 털고 일어나도록 귀한 약재는 물론 좋은 집도 마련해준 사실…

실로 종업원들을 위해 바친 초급당일군들의 진정을 다 꼽자면 끝이 없다.

바로 그 진정은 종업원들의 마음의 문을 연 열쇠였으며 대중의 정신력을 폭발시킨 위력한 추동력이였다.

당조직에서는 대중의 앙양된 기세에 맞게 전투목표를 더 높이 세우고 지배인 림창식, 기사장 윤춘국동무와 합심하여 일판을 통이 크게 전개해나갔다. 일군들은 때로는 인수원, 때로는 후방일군이 되기도 하며 로동자들의 사업조건, 생활조건보장을 위해 헌신의 땀을 아낌없이 뿌렸다.

자식이 어머니를 닮듯 종업원들도 초급당일군들을 닮아갔다.

공장을 위한 일에 아껴둘 땀이 따로 있겠는가고 하면서 모두가 떨쳐나섰다. 종업원가족들도 합세하여 공장을 꾸리는 사업에 적은 힘이나마 이바지하였다.

불보다 뜨거운 당일군들의 사랑과 정, 이신작칙은 열백마디의 교양사업보다 더 큰 실효를 나타냈다.

짧은 기간에 단위가 멋쟁이공장으로 되였다.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실과 문화회관을 비롯한 사상교양거점들이 훌륭하게 꾸려졌다. 규모가 큰 로동자들의 종합휴계실은 두달 남짓한 기간에 건설되였다.

돼지우리, 남새온실, 한증칸이 달린 목욕탕, 종업원식당, 궁륭식탁구장을 비롯한 후방기지들과 문화후생시설들이 짧은 기간에 그쯘하게 꾸려져 종업원들의 일손을 흥겹게 해주고있다.

후방공급사업에서도 혁신이 일어났다. 종업원들의 식탁이 푸짐해지고 명절날들에는 고기, 남새, 기름을 비롯한 후방물자들을 공급해주고있다. 종업원들의 생일상도 잘 차려주어 좋은 반영이 제기되고있다. 그것이 곧 생산성과의 큰 밑천으로 되였다.

어느 당일군이나 주관적욕망으로는 자기 단위를 쉽게 일떠세울수 없다. 대중의 마음을 움직여야 한다. 그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가 당일군의 진정이다. 이곳 초급당위원회 사업이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있다.

본사기자 전경서

가장 우월한 우리 나라 사회주의보건제도를 끝없이 사랑하고 빛내이자

인민, 그 이름앞에 무한히 성실하리

중구역인민병원 의료일군들

중구역인민병원의 의료일군들이 치료예방사업의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투쟁을 벌려 많은 성과들을 이룩하고있다.

지난 10여년동안 이곳 의료집단이 바쳐온 헌신의 나날속에는 보건일군들이 절세위인들의 한생의 로고가 어린 인민적보건제도를 어떤 자세와 립장에서 받들어나가야 하는가에 대한 대답이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치료예방사업의 발전과 의료봉사사업의 성과는 선진적인 진단과 치료방법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하는데 크게 달려있습니다.》

10여년전 어느날 밤 병원으로는 최중증상태에 빠진 한 주민이 실려들어왔다. 환자의 생명은 시간을 다투었다.

그런 때면 의례히 그러하듯 병원의 의료일군들은 즉시 가까이에 위치한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병원으로 환자를 후송시켜 구급의료상방조를 받을수 있게 하였다.

다음날 아침 병원의 속보판에는 담당지역 주민의 건강회복을 위해 땀흘리며 뛰여다닌 해당 과의료일군들의 소행이 소개되였다.

종업원들로부터 축하의 인사를 받으며 웃음짓는 그들을 바라보는 원장 방인철동무의 얼굴은 밝지 못했다. 이곳에 배치되여온지 얼마 안되여 그러한 광경을 여러번이나 목격한 원장은 병원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였다.

효능높은 진단설비로 질병발생의 원인들을 정확히 찾아내고 그에 맞는 방법들을 선택하는것은 치료예방사업의 과학화를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선결조건으로 된다.

그런데 당시 병원에는 필요한 진단설비들이 적었다. 그로부터 병원에서는 보다 정확한 진단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수십년세월 상급병원으로 보내군 하였다.

문제는 구역급병원이라고 하여 그것을 있을수 있는 현상으로 여기는 일군들의 관점에 있었다.

다음날 원장은 의료일군들의 모임에서 말하였다.

《물론 중환자들을 제때에 상급병원으로 파송시켜 대책을 세우는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린 중구역 주민들의 건강을 당과 국가앞에 책임진 의료일군들입니다.》

그날 밤 퇴근길에 나선 원장의 가슴속에는 졸업후 동무들이 맡게 될 혁명초소는 규모와 지역에 따라 서로 달라도 당앞에 지닌 임무는 어디서나 꼭같다고, 그것은 우리 사회에서 의료일군들은 당에서 하나같이 귀중히 여기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치료사업을 하기때문이라고 하던 대학시절 스승의 말이 다시금 깊이 새겨졌다.

방인철동무는 그후 구역안의 주민들의 건강증진에 좋은 진단설비들의 구입을 위해 해당 일군들과의 련계밑에 전국의 의료기구공장들의 실태를 알아보기도 하고 상급병원들에 여러차례 나가보기도 하였다.

하지만 방도가 서지 않았다. 당시 의료기구공장들에서는 여러가지 조건으로 생산을 정상화하지 못하고있었으며 상급병원들에는 남아돌아가는 진단설비가 없었다.

원장은 주저앉지 않았다.

어느날 지방출장길에서 돌아온지 얼마 안되여 또다시 집을 나서는 남편의 수척한 모습을 바라보는 안해의 마음은 저으기 무거웠다.

구역인민병원에 온 첫날부터 단위를 보건의학적요구에 맞게 꾸리느라 밤낮없이 애를 쓰고있는 남편이였다.

짧은 기간에 치료예방사업에서 질적인 개선을 가져오기 위해 해야 할 일도 한두가지가 아니였다.

그것만으로도 힘에 부치련만 또 하나의 어려운 일감을 스스로 붙안고 뛰여다니는 남편의 건강이 념려되여 안해는 말하였다.

《그러다 쓰러지겠어요. 그래 상급병원파송률을 줄이지 못한다고 누가 추궁이라도 하던가요?》

《아니, 하지만 병색이 짙은 구역안의 환자들을 상급병원으로 보낼 때마다 가슴이 저려오군 하오. 당신이나 나나 우린 다같이 인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진 사람들이 아니요. 어떻게 일터가 다르다고 맡은 임무의 무게마저 다르다 하겠소. 나는 중구역 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진 병원의 원장이요.》

일단 결심하면 끝장을 볼 때까지 완강하게 내미는 남편의 불같은 성미를 알고있는 안해는 물었다.

《그럼 무슨 방도라도 있어요?》

《아직은 이렇다 할 방도는 없소. 그러나 명백한것은 죽으나 사나 기어이 해내야만 한다는것이요.》

그리고나서 원장은 자동차적재함에 몸을 싣고 출장길을 떠났다.

그렇게 낮과 밤이 따로 없이 출장길을 다닌적이 과연 그 얼마였던가.

원장은 그 나날 어느 한 단위의 일군들을 찾아갔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세워주시고 빛내여주신 인민적보건제도를 위한 일이라면 천리불속도 웃으며 헤쳐갈 열의에 넘쳐있는 원장의 모습은 그곳 일군들의 마음을 크게 감동시켰다.

그들은 의료일군들의 불같은 노력에 자기들의 힘도 합치겠다고 하면서 적극 도와나섰다.

그리하여 병원에는 혈관과 복부, 심장상태를 정확히 감별할수 있는 다기능수자식초음파진단기를 비롯한 현대적진단설비들이 갖추어지게 되였다.

특히 병원의 외과, 내과, 산부인과, 소아과의 집중치료실들에는 환자의 생명지표를 실시간적으로 장악할수 있는 환자종합감시기와 흡입기, 흡인기, 산소발생기, 현대적인 구강종합치료설비 등이 그쯘히 마련되였다.

개원이래 처음 보는 설비들인지라 쓸어보고 또 쓸어보며 지금껏 담당지역 주민들에게 상급병원파송증을 떼줄 때마다 마음을 무겁게 하던 죄책감을 이제는 털어버리게 되였다면서 모두가 기뻐할 때 원장은 더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다시금 출장길에 나섰다.

어느해 섣달 그믐날 그는 퇴근을 미루고 병원의 의료일군들과 마주앉았다.

열띤 토론속에 더 필요한 진단설비들의 종수와 그 해결방도를 거듭 론의하고난 뒤 한 의료일군이 물었다.

《첨단진단설비종수에 있어서나 상급병원파송률을 줄인 건수에 있어서 우리 병원이 그만하면 전국적으로 앞장섰다고 말할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래. 하지만 그것이 결코 우리의 목표로 될수는 없소. 구역의 주민들속에서 나타나는 질병의 원인들을 빠짐없이 다 찾아내여 치료할 때까지는 우린 쉴 권리가 없지.》

그후 몇해동안 원장 방인철동무는 더욱더 왕성한 정력을 지니고 병원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갖추기 위한 사업에 모든 힘을 다 바쳤다.

아들이 중학교를 졸업하고 조국보위초소로 떠나던 그날에도, 딸이 대학입학시험을 치던 그날에도 그는 평양에 없었다. 아버지를 기다리는 자식들곁에 병원의 의료집단은 원장을 대신하여 서있었다.

이 하나의 사실을 통해 우리는 담당지역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우리 시대 의료일군들이 지녀야 할 복무의 정신에 대해 말하게 된다.

맡겨진 초소는 달라도 맡겨진 임무는 하나,

이런 불같은 자각을 안고 누가 보건말건 10여년세월 지혜와 열정을 깡그리 불태워온 사람이 어찌 원장 방인철동무만이라 하랴.

그 어느때보다 맡겨진 일을 두몫, 세몫씩 해제낀 일군들인 장정호, 고준봉동무들과 가정부인의 몸으로 지방출장길을 끝없이 이어간 기능진단과 의사 신옥주, 과장 리국철, 리영금, 황명심동무들, 두달이라는 짧은 기간에 적은 로력으로 2층짜리 구강분원을 번듯하게 일신하고 주민들에 대한 의료봉사를 높은 수준에서 진행한 분원장 리길송동무를 비롯한 구강분원의 의료집단…

이들의 적극적인 노력에 의해 병원에는 위 및 장내시경, 심장초음파, 복부초음파진단기를 비롯한 현대적진단설비들과 치료설비들이 보다 원만히 마련되게 되였다.

지난 시기 중앙급병원들에서나 하던 여러건의 어렵고 복잡한 수술들을 적극 도입, 여러 계통 질병들의 진단을 신속정확히 함으로써 상급병원파송률을 거의나 줄였을뿐아니라 학위소유자 대렬이 해마다 장성…

이것은 최근 몇해동안 중구역인민병원 의료집단이 거둔 자랑찬 성과이다.

10여년전만 해도 그리 잘 알려지지 않았던 병원은 오늘 시안의 주민들은 물론 지방의 환자들도 찾아오는 소문난 단위로 되였다.

중구역인민병원 의료일군들의 사업성과는 전국의 보건일군들에게 사회주의보건제도의 우월성을 더 높이 발휘해나가는데서 조건이 결코 문제로 되지 않는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글 본사기자 방경찬
사진 본사기자 강정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정성은 사회주의보건의 속성이며 생명입니다.》

얼마전 신의주시 본부지구종합진료소를 찾았던 나는 그곳 일군들로부터 어느 한 호담당의사에 대한 감명깊은 이야기를 들었다.

그 의사가 담당한 본부동에는 합병증에 걸린 70대의 로인이 살고있었다.

병이 워낙 깊은지라 가족측에서도 신심을 가지지 못하고있던 그때 호담당의사 김영춘동무는 환자의 건강을 기어이 회복시키기 위한 긴장한 치료전투를 벌리였다.

상급병원의료일군들을 자주 만나 해당 질병을 고칠 방도를 찾는 한편 의학과학기술도서들을 밤새워 탐독하였다.

그에 기초하여 그는 지난해부터 환자의 집을 매일이다싶이 찾아가 의료봉사활동을 진행하였다.

결과 환자의 건강상태는 현저히 개선되였다.

하루도 아닌 수백일동안이나 환자에게 온갖 사랑과 정성을 기울인 그의 수고와 노력을 두고 감탄을 금치 못하는 나에게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단상 증표

《저에게는 본부동지역 주민들의 건강관리를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의 말을 듣느라니 언젠가 만났던 황북종합대학 강건의학대학 사리원시제1인민병원 사지외과 의료일군들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곳 의료일군들은 몇달동안 수십차례에 걸쳐 집체적협의를 진행한데 이어 병원에서 처음으로 되는 어렵고 복잡한 수술을 림상실천에 받아들여 상매2동에서 사는 영예군인을 기적적으로 소생시켰다.

그 사실도 감동적이였지만 우리 당이 그토록 아끼고 사랑하는 영예군인들에 대한 건강검진을 스스로 맡아 진행하던 나날에 환자를 알게 되였다는 이야기는 더욱 뜨거웠다.

그때에도 아름다운 소행의 주인공들은 자기들이 한 일을 너무도 응당한 일로 여기며 우린 상매2동 주민들의 건강을 당앞에 책임진 의료일군들이라고 말했었다.…

그들의 모습을 눈앞에 떠올리느라니 문득 나에게는 지금껏 례사로이 보아온 정성이라는 두 글자와 더불어 어느 과의 누구라고 씌여진 산뜻한 의사복우의 명찰이 무심히 안겨오지 않았다.

나에게는 그것이 사회주의보건의 속성이며 생명인 정성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려 당앞에 담당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전적으로 책임지려는 우리 시대 의료일군들의 맹세의 증표로 뜨겁게 새겨졌다.

본사기자

한 녀성의 편지를 통해 알게 된 사연

보건성 피부병예방원 의료일군들에 대한 이야기

《흔히 녀성들의 외형적미를 론할 때 화려한 옷차림과 용모에 앞서 숱좋은 머리카락을 먼저 말합니다. 녀성이라면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제일 많은 관심을 돌리는것이 머리단장일것입니다. …》

평양시의 어느 한 기관에서 부원으로 사업하고있는 녀성의 편지는 이렇게 시작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의료봉사수준은 림상기술수준이 얼마나 높은가 하는데 크게 달려있습니다.》

함치르르 윤기가 돌아 사람들의 부러움을 자아냈던 그의 머리카락은 지난해 11월말부터 뭉청뭉청 빠지기 시작했다.

후날 스트레스에 의한 탈모증에 걸렸다는것을 알게 된 그는 번민에 잠기였다. 사업상관계로 자주 만나군 하던 아래단위 일군들을 마주하기가 창피스러웠고 1년 열두달 야외에서는 물론 사무실안에서도 모자를 쓰고있어야만 한다는 생각으로 마음속 고충이 컸다.

그러던 어느날 그는 보건성 피부병예방원을 찾아갔다.

진단을 하고난 뒤 이젠 전문병원에 왔으니 마음을 놓아도 된다고 이르는 보건성 피부병예방원 고려치료과 과장 홍순희, 의사 표상원동무들의 말이 그는 잘 믿어지지 않았다.

탈모증치료가 그리도 쉬운것이라면 어째서 사람들의 머리속에 난치성질병으로 자리잡혀있으랴 하는 생각이 갈마들었기때문이였다.

그러나 기적은 일어났다.

병원에 입원한지 석달만에 뒤머리에서 나온 머리카락이 얼마 안있어 앞머리에서도 뾰조름히 나오기 시작했던것이다. 그는 눈시울을 적시였다.

그처럼 두려워하던 병을 털어버리고 기쁨과 행복으로 충만된 나날들을 다시금 웃으며 보내게 되였다는 벅찬 생각에 울었고 오늘을 위해 오랜 나날을 하루같이 바쳐온 의료일군들이 진정 고마와 울었다. 그는 한생 잊을것 같지 못했다.

탈모증환자는 기분상태나 영양이 누구보다 좋아야 한다면서 자주 찾아와 우스개소리도 해주고 색다른 음식들을 집에서 들고나와 침상에 놓아주던 과의료일군들의 감동깊은 모습들과 선진적인 고려의학적방법을 받아들이기 위해 뛰여다니던 모습들을…

녀성부원이 보내온 편지에는 이런 내용도 적혀있었다.

일반적으로 원형탈모증, 범발성탈모증, 완전탈모증 등은 스트레스와 콩팥장애, 소화기장애 등이 그 요인으로 되고있다. 그런데로부터 이곳 의료일군들은 지금껏 탈모증일반은 물론 여러 계통의 내과적질병들에 대한 치료방법을 터득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한다. 오랜 림상경험을 가진 시안의 여러 단위 의료일군들을 찾아가 배우기도 하고 때로는 부피두툼한 의학과학기술도서들을 펼쳐놓고 탐구의 나날을 보내기도 하였다.

결과 고려치료과에서는 10여년세월 그 녀성만이 아닌 전국의 수많은 탈모증환자들을 치료하여 기쁨을 안겨주었다.

그들중에는 이제는 한가정의 어머니가 된 처녀들도 있었고 교원, 체육인, 배우들도 있었다.

녀성부원의 편지를 받아본 즉시 우리는 보건성 피부병예방원 의료일군들을 찾아 떠났다. 그토록 좋은 일을 하고서도 어째서 지금까지 단 한번도 자랑을 하지 않았는가고 묻자 그들은 말했다. 아픔에 잠못드는 사람들을 위해 우리 보건일군들이 있는게 아닌가고, 응당 할 일을 한것이 무슨 자랑이라고 소문을 내겠는가고.

자기들이 바쳐가는 정과 사랑을 너무도 례사롭게 여기는 그들의 말을 듣느라니 언젠가 보았던 어느 한 도서의 글줄이 떠올랐다. 그 도서에는 보건이 상업화되여있는 다른 나라들에서는 그것이 비록 자그마한 성과라고 할지라도 광고비까지 내여가며 요란스레 선전한다고, 그 리유는 돈때문이라고 적혀있었다.

병치료의 목적이 인민의 생명과 건강증진에 있다는 오직 하나의 생각으로 모든 지혜와 열정을 깡그리 바치며 그 길에서 삶의 보람과 기쁨을 찾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다름아닌 우리 시대 의료일군들이라는 생각에 병원을 나서는 우리의 가슴은 마냥 후더워올랐다.

본사기자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재일동포조국방문단 경모의 정 표시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13일 재일동포조국방문단이 경모의 정을 표시하였다.

방문단성원들은 민족만대의 륭성번영을 위한 토대를 마련해주시였으며 총련의 강화발전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절세위인들의 혁명생애를 가슴뜨겁게 돌이켜보며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에 꽃다발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리였다.

재일조선청년학생대표단

비전향장기수와 상봉

배준렬 재일본조선청년동맹 중앙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재일조선청년학생대표단 성원들이 13일 불굴의 통일애국투사인 비전향장기수 리공순동지와 상봉하였다.

리공순동지는 수십년간이나 남조선의 살기풍기는 철창속에 갇혀있으면서도 파쑈교형리들과 굴함없이 싸운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혁명승리에 대한 굳은 신념은 철쇄로도 묶을수 없었다고 하면서 당과 수령에 대한 드팀없는 신뢰심을 간직하였기에 삶과 죽음의 대결장에서 불사신처럼 꿋꿋이 신념을 지킬수 있었다고 말하였다.

숭고한 혁명적의리와 동지애를 지니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품에 안겨 불굴의 통일애국투사, 공화국영웅으로 값높은 삶을 누려왔으며 오늘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뜨거운 사랑과 은정속에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있는데 대하여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대표단성원들이 절세위인들을 높이 모신 백두산대국의 앞길에는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이라는 신념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가리라는 기대를 표명하였다.

대표단성원인 리용기는 수령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필승의 신념을 간직하고 견결히 싸운 통일애국투사들의 정신세계에서 큰 고무를 받았다고 하면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만 계시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철석의 의지를 안고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과 총련의 강화발전에 이바지하는 믿음직한 역군으로 자라날 결의를 표명하였다.

각지 당원들과 근로자들

뜨거운 애국의 한마음을 안고

각지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뜨거운 애국의 마음을 안고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을 성심성의로 적극 지원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우리 시대의 참된 애국자는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없이 귀중히 여기고 사랑하며 사회주의 우리 조국을 강성대국으로 일떠세우려는 애국의 한마음을 안고 공민적의무를 다하는 사람입니다.》

해주시인민보안서 로동자 김경애는 지난 1월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접하고 부강조국건설에 적극 이바지하는것은 공민의 숭고한 의무라고 하면서 많은 물자들을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장에 보내주어 돌격대원들이 맡겨진 공사과제를 제기일에 끝낼수 있게 하였으며 조선중앙방송위원회 평양록화편집사 부원 주명희도 여러차례에 걸쳐 돌격대원들을 물심량면으로 지원하였다.

수도건설위원회 무역관리국 아래단위 부원 김현희와 함경남도인민보안국축구단 로동자 최정덕도 살림집건설을 비롯한 공사에 필요한 물자들과 생활필수품들을 성의껏 마련하여 보내주었다.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에 동원된 돌격대원들속에서도 아름다운 소행이 발휘되고있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중앙과학기술통보사 통역원 박진명은 돌격대에 탄원하여 일하면서 가정에서 마련한 물자들을 지원하였으며 린산군인민위원회 아래단위 로동자 배금희는 건설장에 탄원한 첫날부터 맡은 일을 성실히 하면서 성심성의로 지원하여 돌격대원들의 전투적사기를 높여주었다.

국가과학원 지능정보연구소 연구부조수 리형진도 부모의 도움으로 마련한 많은 물자들을 지원하였으며 인민봉사총국아래 만경대천석식당 로동자 김봉숙도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에 동원된 돌격대원들을 적극 고무해주었다.

이밖에도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과학기술관리연구소 연구원 림혜영, 은하지도국 리혜영, 상업성 아래단위 지배인 김수월과 로동자 강명학, 국가과학원 111호제작소 아래단위 연구사 강철진, 잠업비단공업국 자재상사 로동자 신정희, 내각사무국 직맹위원회 직맹이동해설강사 전금향, 평양시인민위원회 상업관리국 아래단위 부원 리명순과 평양시인민위원회 상업관리국 로동보호물자공급관리소 로동자 정춘선, 평양시인민위원회 아래단위 로동자 리일심, 평안남도인민보안국 정치부 지도원 김성국, 순천시인민보안서 아래단위 인민보안원 변영민, 평성시편의봉사관리소 로동자 백영실, 회창군 대곡리 2인민반 원향심, 회창군 국토환경보호관리부 도로건설대 로동자 고철진, 평북종합대학 도서관 사서 김옥영, 염주군 염주초급중학교 교원 김영신, 염주군상업관리소 로동자 리영실, 황해남도고려약생산관리국 재령고려약공장 로동자 리명화, 청진시 청암구역 상업관리소 로동자 박영순, 성천강체육단 예술체조음악률동감독 윤영림, 정평군 삼도리 15인민반 한춘희, 온천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 부원 김경희를 비롯한 각지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당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을 성심성의로 지원하였다.

본사기자 홍성철

라오스인민민주주의공화국 고위군사대표단

여러곳 참관

라오스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비서인 쌩누안 싸이냐탓국방상을 단장으로 하는 라오스인민민주주의공화국 고위군사대표단이 13일 조선인민군무장장비관을 참관하였다.

손님들은 백두산절세위인들께서 나라의 국방공업의 창설과 강화발전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에 대한 해설을 들으면서 우리 군대의 군사적위력을 보여주는 각종 무기 및 전투기술기재들을 주의깊게 돌아보았다.

라오스인민민주주의공화국 고위군사대표단 판문점 참관

국방상은 감상록에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의 군대와 인민이 조국보위와 군력강화를 위한 사업에서 획기적인 발전을 이룩하기 바란다는 글을 남기였다.

이에 앞서 고위군사대표단은 판문점을 참관하였으며 조선인민군 군부대를 방문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인민무력부와 라오스인민민주주의공화국 국방성사이 협조에 관한 량해문 체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인민무력부와 라오스인민민주주의공화국 국방성사이 협조에 관한 량해문이 13일 평양에서 체결되였다.

여기에는 우리측에서 인민무력부장인 조선인민군 륙군대장 박영식동지와 렴철성륙군중장, 방관복륙군중장을 비롯한 조선인민군 장령들이, 상대측에서 라오스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비서인 쌩누안 싸이냐탓국방상을 단장으로 하는 라오스인민민주주의공화국 고위군사대표단 성원들, 폰캄 인타부아리 주조 라오스인민민주주의공화국 특명전권대사가 참가하였다.

인민무력부장 박영식동지와 쌩누안 싸이냐탓국방상이 량해문에 수표하였다.

2015년 세계인구의 날에 즈음한 토론회 진행

2015년 세계인구의 날에 즈음한 토론회가 13일 대동강외교단회관에서 있었다.

보건부문, 성, 중앙기관, 근로단체, 사회단체일군들과 주조유엔인구기금사무소 대리책임자를 비롯한 여러 국제기구대표부 대표들, 대표부성원들, 여러 나라 외교대표들, 대사관성원들이 토론회에 참가하였다.

《재해시 재생산건강봉사》의 주제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발언자들은 큰물피해 등 재해에 대처한 재생산건강봉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자연재해를 방지하고 재해가 발생하면 긴급의료봉사를 제때에 진행하여 녀성들에게 종합적인 재생산건강봉사를 제공할데 대하여 그들은 말하였다.

이어 세계적으로 진행되는 재해시 및 재해후 재생산건강봉사내용, 재해시 국제기구들이 진행하는 긴급재생산건강봉사 등에 대한 토론들이 있었다.

이날을 맞으며 인구연구소에서는 《인구소식》 특간호를 발간하였다.

라오스인민민주주의공화국 고위군사대표단 귀국

라오스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비서인 쌩누안 싸이냐탓국방상을 단장으로 하는 라오스인민민주주의공화국 고위군사대표단이 13일 귀국하였다.

비행장에서 방관복 조선인민군 륙군중장과 폰캄 인타부아리 주조 라오스인민민주주의공화국 특명전권대사가 전송하였다.

유럽의 여러 정당출신 정치인대표단 도착

영국레이버당출신 전 수상의 관방실장이였던 죠나탄 포웰 국제중재기구 최고집행관을 단장으로 하는 유럽의 여러 정당출신 정치인대표단이 13일 평양에 도착하였다.

비행장에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일군들이 맞이하였다.

세계관광기구대표단이 떠나갔다

탈레브 리파이 총서기를 단장으로 하는 세계관광기구대표단이 13일 평양을 떠나갔다. 비행장에서 리응철 국가관광총국 부총국장이 전송하였다.

대표단은 체류기간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 마식령스키장을 비롯한 여러곳을 참관하였으며 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대를 돌아보았다.

재일동포조국방문단 도착

신종수를 단장으로 하는 재일동포조국방문단이 13일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민심에 역행하는 력사의 반동들은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것이다

대결정책은 북남관계파국을 몰아오는 근원

북남관계의 파국을 끝장내고 관계개선의 새 국면을 열어나가려는것은 온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이며 요구이다.

얼마전 남조선의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련대와 광복 70돐, 6.15공동선언발표 15돐 민족공동행사 경기준비위원회를 비롯한 각계각층 단체들은 북남관계개선과 평화통일을 위한 투쟁을 벌려나갈 의지를 피력하면서 관계개선의 발목을 잡고있는 반통일정책을 철회할것을 괴뢰당국에 강력히 요구하였다.

그러나 겨레의 불같은 지향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남관계는 최악의 파국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있다.

그것은 남조선당국의 악랄한 동족대결정책때문이다. 괴뢰당국의 대결정책을 그대로 두고서는 언제 가도 북남관계를 개선할수 없고 평화와 통일의 길도 열어나갈수 없다.

남조선괴뢰당국의 대결정책은 북남사이의 불신과 체제대립을 심화시키는 극단적인 반통일정책이다.

북남사이의 대화와 관계개선을 이룩하자면 무엇보다먼저 상대방을 반대하는 도발적행동부터 일체 중지하여야 한다. 대화상대방의 존엄과 체제를 헐뜯으며 정치군사적도발과 위협으로 정세를 긴장시킨다면 대화분위기를 마련할수 없고 설사 대화가 열린다고 해도 성과를 거둘수 없다.

그것은 곡절많은 북남관계의 력사가 보여주는 심각한 교훈이다.

하지만 괴뢰반역패당은 말로는 《대화》를 떠들면서도 실제에서는 우리 공화국의 존엄높은 사회주의제도를 해치고 《체제통일》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극악무도한 도발책동에 발광적으로 매달리고있다.

얼마전 괴뢰들이 미국의 대조선압살책동에 편승하여 《북을 지원하고있는 기관과 개인》들을 상대로 독자적인 《대북금융제재》라는것을 공포한 사실도 그것을 말해준다.

괴뢰들은 저들의 반공화국제재소동에 대해 그 누구의 《변화유도》에 그 목적이 있다고 떠벌이였다.

여기에서도 명백한바와 같이 괴뢰패당은 어떻게 하나 우리의 힘찬 전진을 가로막고 저들의 불순한 반공화국압살흉계를 실현해보려고 발광하고있다.

그보다 앞서 괴뢰들은 온 민족의 한결같은 규탄배격에도 불구하고 유엔《북인권사무소》라는것을 서울에 끌어들이는 도발광대극을 벌려놓았다.

있지도 않는 《북인권》문제라는것을 내외에 여론화하며 그것을 구실로 반공화국대결을 합리화하고 더한층 강화하여 우리를 해치려는 괴뢰역적패당의 계책이 바로 여기에서 뚜렷이 드러나고있다.

괴뢰들의 《대북금융제재》, 유엔《북인권사무소》설치와 같은 사상 류례없는 특대형도발들은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다. 거기에는 하나같이 《체제통일》이라는 범죄적야망이 독뱀처럼 꿈틀거리고있다. 괴뢰들이 동족의 사상과 제도를 악의에 차서 헐뜯으며 외세와 공조하여 《체제통일》야망을 실현하려고 미쳐날뛰고있는 형편에서 북남사이의 신뢰와 관계회복을 기대할수 없고 신의있는 대화도 진행할수 없다는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괴뢰패당의 체제대결망동으로 하여 북남대화의 문이 좀처럼 열리지 못하고 불신과 대결의 장벽이 날로 높아가고있는것은 실로 통탄할 비극이 아닐수 없다.

남조선괴뢰당국의 동족대결정책은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면서 핵전쟁위기를 고조시키는 위험천만한 전쟁정책이다.

오늘 조선반도정세는 매우 불안정하다. 미국은 그 무슨 《북핵위협》에 대해 계속 요란히 떠들면서 남조선과 그 주변지역에 최신공격무기와 전쟁장비들을 증강배치하고 북침전쟁연습소동을 빈번히 벌려놓고있다.

이에 대해 내외여론들은 조선반도의 현정세가 새로운 세계대전의 불씨를 안고있다고 심심한 우려를 표시하고있다.

문제는 남조선괴뢰들이 북남관계의 운명과 민족의 전도는 아랑곳없이 북침야망에 사로잡혀 외세를 등에 업고 새 전쟁의 불집을 터치려고 피눈이 되여 날뛰고있는데 있다.

우리는 조선반도의 긴장상태를 해소하고 북남관계를 개선하려는 의지를 안고 남조선당국에 외세와 함께 벌리는 합동군사연습을 비롯한 모든 전쟁책동을 중지할데 대해 한두번만 요구하지 않았다.

우리는 얼마전에도 공화국정부성명을 발표하여 남조선당국이 미국과의 침략적인 군사연습을 영영 걷어치우고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는 길로 나올데 대하여 또다시 강조하였다.

그러나 현 괴뢰집권세력은 《튼튼한 안보》가 《대북정책실현의 토대》라느니, 군사연습은 《남북관계와 무관》하다느니 하는 황당한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북침불장난소동을 더욱 광란적으로 감행하고있다.

최근에도 괴뢰호전광들은 조선동해와 서해해상을 작전무대로 하여 합동상륙훈련, 해안양륙군수지원훈련 등 도발적인 전쟁연습에 피눈이 되여 날뛰면서 군사적긴장상태를 극도로 첨예화시키였다.

괴뢰들은 미국의 고고도요격미싸일 《싸드》의 남조선배비를 암암리에 추진하고 해외로부터 공중급유기를 새로 도입하는 등 북침무력증강책동에 열을 올리는 한편 미국의 부추김밑에 재침열에 들뜬 일본과의 군사적결탁도 본격적으로 다그치고있다.

남조선괴뢰호전광들이 외세와 야합하여 감행하고있는 북침전쟁도발책동으로 하여 조선반도에서 핵전쟁발발의 위기는 날로 고조되고있으며 조국해방 일흔돐이 되는 올해에 평화와 통일의 새로운 전기를 열어나가려는 우리 겨레의 투쟁의 앞길에는 커다란 난관과 장애가 가로놓이고있다.

현 사태는 남조선괴뢰당국이 동족대결정책을 철회하고 반공화국도발책동을 중지하지 않는 한 북남관계는 결코 개선될수 없다는것을 명백히 보여주고있다.

북남관계개선과 조국통일에 대한 겨레의 지향과 시대의 요구에 역행하는것은 추호도 용납 못할 반민족적죄악이다.

최근 괴뢰집권자들은 저들이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있다느니, 그 누구의 《호응을 기대》한다느니 하는 뻔뻔스러운 나발을 늘어놓으면서 북남관계파국의 책임을 모면하고 내외의 규탄여론을 회피하려고 교활하게 놀아대고있다.

그러나 그따위 서푼짜리 입방아질로 저들의 반통일적범죄행위를 감쌀수 없고 동족대결정책을 합리화할수 없다.

남조선괴뢰당국이 진실로 북남사이의 대화와 관계개선에 관심이 있다면 외세와 작당하여 동족을 해칠 어리석은 망상을 걷어치우고 대결정책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

괴뢰패당이 이것을 무시하고 계속 북남관계파괴책동에 열을 올린다면 그로 인해 초래될 엄중한 후과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지게 될것이다.

다시금 명백히 하건대 북남관계개선의 전도는 괴뢰당국의 대결정책철회여부에 달려있다.

은 정 철

경악을 자아내는 반공화국모략선전

미국과 괴뢰들이 반공화국모략선전에 환장한 나머지 별의별 허튼 여론을 다 내돌리고있다. 나중에는 평양생물기술연구원을 탄저균생산기지로 둔갑시키는 실로 경악스러운 망동까지 부리고있다.

얼마전 《대북문제전문가》로 자처하는 미국의 어느 한 연구원이라는자는 《기자간담회》라는데서 평양생물기술연구원의 생산시설들이 《탄저균생산을 위한 시설과 같은것》이라느니, 《농약생산이나 탄저균생산과정은 같다.》느니 하고 떠벌이면서 《북도 탄저균을 생산할수 있다는 신호》일수 있다는 뚱딴지같은 나발을 줴쳤다. 망둥이가 뛰면 꼴뚜기도 뛴다고 《YTN》과 《KBS》를 비롯한 괴뢰보수언론들도 《일리가 있다.》느니 뭐니 하고 맞장구를 치면서 모략선전의 쌍피리를 불어대고있다. 그야말로 삶은 소대가리도 폭소를 터칠 노릇이 아닐수 없다. 미국과 괴뢰들의 모략나발은 우리에 대한 병적인 거부감과 적대심에 사로잡혀 모든것을 거꾸로 보는 대결미치광이들의 역겨운 추태이다. 그것은 존엄높은 우리 공화국의 영상을 흐려놓고 국제적인 반공화국압살기운을 더욱 고취하기 위한 불순한 정치적음모이다.

몸서리치는 생물무기인 탄저균을 가장 많이 생산, 보유하고 서슴없이 사용해온 장본인이 미국이고 괴뢰패당이 그 범죄적망동의 하수인, 공범자이라는것은 내외에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런자들이 우리의 생물농약연구기지까지 탄저균생산시설로 걸고들며 랑설을 퍼뜨리고있는것은 도적이 매를 드는 격의 파렴치한 망동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평양생물기술연구원은 여러가지 작물의 병해충을 구제하는데 쓰이는 생물농약 등을 연구개발하고 생산하는 과학연구 및 생산기지로서 탄저균과는 아무런 인연도 없다. 얼마전에도 이곳에서는 농산과 축산, 과수, 원예 및 원림사업에 절실히 필요한 효능이 높고 인체와 토양, 생태환경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는 21세기 생물농약이 연구개발되여 우리 인민들에게 커다란 기쁨을 주었다.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이런 자랑스러운 기지를 미국과 괴뢰들이 감히 악명높은 탄저균과 결부시킨것이야말로 반공화국모략과 적대행위에 이골이 난 악한들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할수 없는짓으로서 우리 인민들의 치솟는 증오와 격분을 자아내고있다.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이 《농약생산이나 탄저균생산과정은 같다.》고 생떼를 쓰면서 우리를 헐뜯고있는데 하다면 세계도처에서 찾아볼수 있는 수많은 생물농약시설들이 다 탄저균생산기지인가. 농약생산시설도 탄저균생산기지라고 우기는것은 반공화국대결에 환장하여 정신착란증에 걸린 미국과 괴뢰패당의 역겨운 몰골만을 드러내놓을뿐이다. 미국의 모략군들과 괴뢰보수패거리들은 그 어떤 악담질로도 저들의 불순한 목적을 실현할수 없다.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이 달을 보고 짖어대는 미친개무리마냥 또다시 우리를 마구 걸고들고있는것은 저들의 흉악한 세균전도발기도를 가리우고 내외의 눈길을 딴데로 돌리기 위한 교활한 술책이다.

최근 남조선에서는 미국이 탄저균을 비밀리에 반입하여 실전도입을 위한 실험을 뻐젓이 벌린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이로 하여 반미기운이 급격히 고조되고있는 속에 남조선을 통채로 미국의 세균전실험장으로 내맡기는 괴뢰보수패당에 대한 인민들의 분노는 하늘에 치닿고있다. 극도로 당황한 괴뢰패당은 저들에게로 쏠리는 항의와 규탄을 모면하고 살인마의 정체를 가리우기 위해 미국상전과 결탁하여 반공화국모략선전에 다시금 나선것이다.

개꼬리 삼년 가도 황모 못된다는 말이 있다. 불순한 정치적목적을 추구하면서 북남관계와 민족의 운명은 어떻게 되든 전혀 아랑곳없이 반공화국모략에 피눈이 되여 날뛰는 괴뢰보수패당이야말로 추악한 사대매국노, 희세의 반역아들이다.

남조선괴뢰들이 미국을 등에 업고 서푼짜리 기만술수로 내외여론을 우롱해보려는것은 가소롭기 짝이 없다. 그런 눅거리요술에 넘어갈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는가.

괴뢰패당이 아무리 상전과 짝자꿍이를 하며 반공화국모략선전에 미쳐날뛰여도 그로부터 얻을것이란 내외의 규탄과 조소, 수치스러운 파멸밖에 없다.

괴뢰들은 우리의 경고를 새겨듣고 분별있게 처신해야 한다.

심 철 영

미군의 세균전실험은 사회적재난, 현 《정권》은 사회적재앙

남조선언론과 시민사회단체들 강력히 규탄

남조선인터네트신문 《민중의 소리》가 미군의 생화학전쟁책동을 묵인하는 남조선보수당국을 비난하여 사설을 실었다.

사설은 얼마전 남조선강점 미군의 《쥬피터계획》실현을 위한 실험실이 서울 룡산, 경기도 오산, 평택, 전라북도 군산에 있는 미군기지들에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지적하였다. 이것은 미군의 탄저균을 비롯한 세균전실험이 더욱 확대되고있다는것을 보여준다고 사설은 밝혔다.

문제는 국방부가 미군의 세균전실험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모르고있으며 집권자 역시 이에 대해 입을 꾹 다물고있는것이라고 사설은 비난하였다. 탄저균사태와 관련하여 국방부를 비롯한 《정부》 부, 처들이 조사와 검증은 물론 재발방지대책을 내놓지 않고있다고 사설은 규탄하였다.

사설은 미군의 탄저균반입과 세균전실험자체는 사회적재난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집권자에 대한 선전에 여념이 없는 청와대, 미국의 대변인노릇을 하고있는 국방부, 현 《정권》은 사회적재앙이라고 사설은 강조하였다.

* *

남조선인터네트신문 《민중의 소리》에 의하면 남조선의 진보련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이 7일 오산미공군기지앞에서 미국의 세균전쟁준비책동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가지였다.

기자회견에서 단체들은 미군의 탄저균반입, 실험으로 민중의 생명과 직접 관련된 검역주권이 침해당하였다고 개탄하였다. 단체들은 미국이 조선전쟁때처럼 세균전을 또다시 감행하려 하고있다고 규탄하였다.

이번 탄저균반입사건에 대해 미군측이 남조선의 조사를 허용하지 않고 앞뒤가 맞지 않는 변명만 늘어놓고있다고 단체들은 비난하였다. 미군이 오산시민들을 한갖 생체실험용으로 취급하고있다고 단체들은 단죄하였다.

단체들은 탄저균반입사건의 진상공개, 책임자처벌, 세균전부대의 즉시 해체를 미국에 요구하였다.

기자회견이 끝난 다음 단체들은 자기들의 요구가 담겨진 항의문을 미7공군사령관에게 전달하기 위해 기지정문앞에서 롱성투쟁을 벌렸다.

파쑈경찰들이 롱성장을 둘러싸고 폭압분위기를 조성하였지만 롱성자들은 투쟁을 계속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미국의 북침세균전음모를 규탄하는 남조선인민들

미국을 등에 업고 어디로 가는가

며칠전 서울의 룡산에 둥지를 틀고있는 남조선미국 《련합군사령부》에서 차마 눈뜨고는 보지 못할 광경이 펼쳐졌다. 《새누리당》대표 김무성이라는자가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사령관을 고맙다고 하면서 등에 업고 마당을 한바탕 돌아친것이다. 이자는 상전앞에서 그 무슨 《발전과 안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다느니 뭐니 하고 아첨을 하며 이런 추태를 부리였다고 한다. 그야말로 민족적존엄은 둘째치고 인간의 체모마저 상실한 추물만이 할수 있는 망동이다. 그꼴이 얼마나 보기 망신스러웠으면 남조선의 인터네트가입자들이 《미국의 노예》, 《망신이다.》, 《여당대표가 하는짓이 쯧쯧… 수치스럽다.》, 《진정한 사대주의전형》 등의 글들을 저저마다 올렸겠는가.

명색이 남조선에서 여당을 대표하는 인물이고 다음기 《대통령》자리까지 노린다는자가 미군장성을 등에 업고 창피한줄도 모르고 히벌쭉거리며 머슴처럼 놀아댔으니 이 얼마나 부끄러운짓인가. 정말 민족의 망신이 아닐수 없다.

김무성이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사령관을 등에 업은것은 결코 우발적인것이 아니다. 그것은 미국상전을 하내비처럼 섬기며 그앞에서 굽신거리고 온갖 아양을 다 떨며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팔아먹은 괴뢰보수패당의 체질적악습의 뚜렷한 발로이다.

사실상 남조선괴뢰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미국을 《은인》으로 피여올리며 주인앞에서 꼬리를 젓는 삽살개마냥 낯뜨겁게 놀아대고있다.

얼마전 서울에서 벌어진 그 무슨 남조선미국 《우호의 밤》행사라는것도 그것을 보여주었다. 이날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라는자는 《진정한 친구》니 뭐니 하고 미국을 추어올리면서 노죽을 부리였다. 괴뢰외교부 장관을 대신하여 《축사》라는것을 랑독한 외교원장이라는자도 《피의 우정》이 어쩌니저쩌니 하며 가을뻐꾸기같은 수작을 늘어놓았다. 이것이 과연 제정신있는자들의 처신인가. 미국이 지금껏 남조선인민들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학살하였는지 도대체 알기나 하고 그따위 나발질인가.

미국의 남조선강점사는 곧 극악한 살인마, 파렴치한 날강도들의 피비린 죄악의 력사이다.

미국의 한 종군기자는 이렇게 고백하였다.

《우리들은 해방군이 아니였다. …우리들은 남조선에 상륙한 첫날부터 조선사람의 적으로 행동하였다.》

그들자신이 인정한것처럼 해방후 남조선에 기여든 미군은 해방자가 아니라 강점자였고 원조자가 아니라 략탈자였으며 보호자가 아니라 침략자였다.

《3년이라는 기간에 우리는 북조선에 있는 모든 마을들을 불태워버렸고 남조선에 있는것도 다 불태워버렸다.》

이것은 지난 조선전쟁당시 미제침략군의 폭격을 총지휘하였던 살인장군의 증언이다.

미제살인마들에게 남조선인민들의 생명같은것은 안중에도 없었다. 로근리대학살만행도 바로 그로 하여 빚어졌다.

범죄적인 인천상륙작전을 앞두고 맥아더는 《조선사람은 미국사람과는 다르다. 따라서 인정이란 있을수 없다. 무자비하고 또 무자비하라.》고 명령한바 있다. 이에 따라 미제살인귀들이 남조선인민들을 대상으로 감행한 치떨리는 만행에 대해 어찌 다 글로 옮길수 있겠는가.

전후에도 미제침략군은 남조선인민들을 식민지렬등인으로, 저들의 변태적인 수욕을 충족시켜주는 한갖 쾌락의 대상으로밖에 여기지 않았고 살인만행을 끊임없이 일삼았다. 군산소녀총격사건, 인천송유관어린이사살사건, 부평소년직승기궤짝사건, 의정부녀인뺑끼칠사건, 파주나무군사살사건, 윤금이살해사건, 미군장갑차녀중학생학살사건 등은 패륜패덕과 인간증오사상으로 길들여진 양키들의 반인륜적범죄행위를 낱낱이 고발해주고있다.

오늘도 미제침략군의 피묻은 군화발이 가닿는 곳마다에서 남조선인민들은 참을수 없는 민족적멸시와 모욕, 헤아릴수 없는 피해와 고통을 당하고있다. 최근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이 탄저균은 물론 그보다 10만배의 독성을 가지고있다고 하는 보툴리누스균까지 비밀리에 저들의 기지에 끌어들여 세균전실험을 해온 사실이 폭로된것은 북과 남의 우리 민족모두를 멸살시키고 전조선을 타고앉으려는 미국의 흉악무도한 속심을 뚜렷이 보여주었다. 타민족에 대한 침략과 지배, 학살과 략탈을 생존방식으로 하고있는 미국이야말로 남조선인민들의 모든 불행과 재앙의 근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미사대에 환장한 괴뢰보수패당은 꼬물만 한 자존심도 없이 미국에 아부굴종하고 상전의 옷섶에 매달리며 추악한 반역질을 일삼다 못해 이제는 상전을 잔등에 업고 감사를 표시하는 팡대극까지 벌려놓고있다. 그것이 미국을 등에 업고 매국반역의 길, 동족대결의 길, 북침전쟁의 길로 계속 질주하겠다는 맹약이라는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외세에 추종하며 그와 결탁하여 민족을 반역하는 이런 더러운 사대매국노들이 날치고있는탓에 북남관계가 파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조국통일위업의 앞길에 커다란 난관과 시련이 겹쌓이고있는것이다.

나라와 민족을 반역하며 외세에 빌붙어 잔명을 부지하는 반역자들의 운명은 언제나 바람앞의 등불신세이다. 괴뢰패당이 미국을 등에 업고 잔명을 부지하며 동족을 해치려고 발광해도 소용이 없다. 그것은 수치와 파멸의 길이다. 이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본사기자

친미사대에 환장한 괴뢰역적패당의 탄압소동

최근 괴뢰파쑈경찰이 미국대사징벌사건을 《북의 지시에 따라 살해하려고 한 사건》이니 뭐니 하며 김기종에게 《보안법》위반혐의를 들씌우려고 발악하고있다.

미국대사징벌사건을 《보안법》위반으로 몰아 김기종을 탄압하는것은 반민주적파쑈폭거이다.

지난 3월 5일 반전평화를 주장하는 시민단체인 《우리 마당》 대표 김기종이 북침전쟁연습소동으로 북남관계를 가로막고 조선반도정세를 전쟁접경에로 몰아가는 미국에 대한 분노의 표시로 미국대사 리퍼트에게 정의의 칼세례를 안겼다.

사건발생후 괴뢰패당은 미국과의 《동맹에 대한 공격》이니, 《배후세력을 들춰내라.》느니 뭐니 하고 고아대며 안전보장회의와 고위급협의회 등을 잇달아 열고 《종북세력에 의한 테로》로 몰아가기 위한 수사소동을 벌렸다. 검찰과 경찰은 70여명이 넘는 방대한 《특별수사팀》을 조작하고 《종북》의 근거를 쥐기 위해 대대적인 폭압광란을 벌렸으며 김기종의 사무실을 수색하는데만도 20여명의 파쑈경찰들을 동원하였다.

괴뢰패당은 지어 김기종이 당국의 승인을 받고 우리 공화국을 방문한것이 마치 《종북》의 근거나 되는듯이 여론을 몰아갔다.

그러나 괴뢰패당이 제아무리 조작수사소동을 벌려보았으나 얻어쥔것이란 반미감정에 의한 남조선주민의 분노라는것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괴뢰패당이 한사코 김기종에게 《보안법》위반이라는 죄명을 들씌우지 못해하는것은 무엇때문인가 하는것이다. 남조선의 《CBS》방송은 미국대사피습사건에 대한 미련방수사국의 수사협조는 단순한 수사협조가 아니다, 미련방수사국이 경찰의 최고지휘부에 상주한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종북》으로 락인하고 수사를 몰아가는 미국과 현 《정부》의 처사는 심상치 않다고 밝혔다.

남조선에서 날로 고조되는 반미감정은 남조선을 저들의 영원한 식민지로, 괴뢰패당을 저들의 충실한 노복, 하수인으로 만들려는 미국에 있어서 골치거리가 아닐수 없다. 하기에 이미 오래전부터 정보기관들과 연구기관들을 통하여 남조선과 해외에 있는 진보민주세력을 면밀히 감시하면서 그들의 동향과 활동등을 체계적으로 장악해온 미국은 괴뢰패당에게 《종북세력이 다양한 령역에서 세력을 확장하고있다는 점을 경계하고 대비책을 마련하라.》는 비밀지령을 주어 《종북세력척결》에로 내몰았다.

사건발생후 이를 계기로 괴뢰패당을 저들에게 더욱 얽매여놓고 남조선 각계층의 반미, 련북통일세력을 말살할 흉계밑에 미국은 즉시 《합동수사》라는 미명하에 미련방수사국을 괴뢰경찰청에 상주시키고 수사정형을 실시간으로 보고받게 하였으며 하수인들에게 《종북》세력을 숙청하라고 공개적으로 고아댔다.

미국대사 리퍼트도 자기에게 칼세례를 안긴 남조선주민을 처벌하라고 떠들었다. 상전의 《참사》를 두고 어쩔바를 몰라하던 괴뢰집권자 역시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사건을 《종북》으로 몰아갔던것이다.

상전을 위해서라면 부모처자는 물론 민족을 외세에 팔아먹는 역적무리는 세계를 경악케 한 탄저균반입사건을 두고 미국에 말 한마디 못하고 오히려 그 직접적배후조종자의 서울행각을 국빈으로 맞이하였으며 남조선강점 미군사령관이라는자를 제 등에 업고 사진찍는 희비극을 연출하였다.

미국에 속바지까지 홀딱 벗기우는줄도 모르고 동맹강화를 떠들며 상전의 비위를 발라맞추기 위해 벌리는 팡대극으로 하여 남조선은 인간생지옥으로 더욱 전락되였다.

김기종에 대한 괴뢰패당의 탄압소동은 상전의 의도를 실현하기 위한 책동의 연장이며 이를 계기로 저들의 대결정책을 합법화하고 진보세력을 말살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북남관계를 결딴내고 남조선을 파쑈화, 보수화하여 분렬과 대결을 영구화하며 각계층속에 종미사대를 부식시켜 남조선을 영원한 식민지로 만들려는 미국의 책동에 맞장구를 치며 돌아치는 괴뢰패당의 반역적정체는 드러날대로 드러났다.

괴뢰역적패당은 사대굴종에 빠져 민족을 외세에 떠맡긴자들이 력사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했다는것을 명심해야 할것이다.

스위스, 오스트리아단체들 유엔《북인권사무소》개설을 규탄

스위스조선위원회, 스위스주체사상연구소조가 괴뢰패당이 끝끝내 유엔《북인권사무소》라는 간판을 내건 반공화국《인권》모략기구를 서울에 설치한것과 관련하여 6월 24일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적대세력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압력밑에 반공화국《인권》모략기구를 서울에 설치하였다. 이 모략기구는 조선에 대한 거짓과 비방중상을 조작하고 전파하는데 복무한다.

친미적인 남조선의 괴뢰보수당국이 파쑈적인 《보안법》으로 인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짓밟으면서 이목을 딴데로 돌리기 위해 있지도 않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 《인권문제》에 대해 떠들어대고있는것은 파렴치성과 철면피의 극치이다.

그러나 미제국주의자들과 그 추종세력들은 애국적인 통일세력에 대한 남조선당국의 파쑈적인 테로행위에 대해서는 못 본체 하고있다.

남조선에 반공화국《인권》모략기구를 설치한것은 모든 조선사람들이 그처럼 갈망하는 북남관계개선을 방해하는 비렬한 책동이다.

우리는 남조선에 유엔《북인권사무소》라는것을 설치한데 대하여 준렬히 규탄한다.

조선이 취하는 모든 대응조치들에 전적인 지지와 련대성을 표시한다. 유엔《북인권사무소》를 당장 철폐하라!

* *

오스트리아 조선의 평화적통일을 위한 로조원들의 련대성위원회가 남조선괴뢰보수패당이 유엔《북인권사무소》를 서울에 개설한것과 관련하여 6월 27일 이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우리는 있지도 않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권문제》를 구실로 유엔《북인권사무소》가 남조선에 개설되였다는 소식을 커다란 격분속에 접하였다.

유감스럽게도 유엔은 이번에 또다시 미국의 도구로 리용되였다. 사실상 인권이 무참히 유린되고있는 곳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아니라 남조선이다. 우리는 남조선당국이 진보적정당을 강제해산시키고 통일애국인사들을 체포구금하고있는데 대하여 그리고 로조단체들의 권리를 엄중히 침해하고있는데 대하여 다시금 상기하게 된다.

남조선당국은 유엔《북인권사무소》를 당장 철폐하고 남조선인민들에게 참다운 인권을 보장하며 동족을 반대하는 모든 도발행위를 당장 중지하여야 할것이다. 지금은 북남공동선언을 리행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할 때이다.

【조선중앙통신】

반인민적교육제도의 희생물들

숭고한 후대사랑, 미래사랑의 서사시가 전설처럼 수놓아지고있는 우리 공화국에서는 나라의 귀중한 모든것이 후대들을 위해 봉사되며 아이들모두가 왕으로 떠받들리우고있다. 산원에서 고고성을 터치고 탁아소에서 재롱의 첫걸음을 떼며 행복의 유치원에서 노래하고 춤추고 희망의 소년궁전들에서 마음껏 배우는 복받은 행복동이들…

하지만 인생의 새싹이 뿌리내리고 자랄수 있는 터전이 깡그리 황폐화된 남조선에서는 아이들이 불행의 수난자, 썩은 교육제도의 희생물로 되고있다.

땅우의 《세월》호들

지금 남조선에는 당장 긴급보수하지 않으면 안되는 낡고 위험한 학교건물들이 수두룩하다. 건설된지 수십년이 되는 서울시내의 한 중학교에서는 꺼지기 시작한 복도바닥이 철근으로만 지탱되고있어 사람들이 다닐 때마다 쿵쿵 울리고있다고 한다. 몇해전에 진행된 안전성판정에서 낮은 등급을 받은 어느 한 초등학교도 건물곳곳에 균렬이 나있어 보는 사람마다 몸서리치고있다.

또 다른 학교를 보자. 그 학교의 벽은 심하게 갈라터져있고 현관바닥에서부터 뻗어간 균렬은 3층벽까지 이어졌다.

그토록 한심한 형편이지만 당국도 학교측도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한다. 학교측에서 《자금사정이 긴박하다.》고 하면서 예산타령만 할 때 당국자들은 《무너질 상황은 아니다.》느니, 《좀더 조사해야 한다.》느니 하는 태평스러운 나발만 불어대고있다.

지어 학교를 운영하는자들은 건물의 한심한 상태를 인터네트를 통해 알린 학생과 학부형들을 《명예훼손》이니 뭐니 하며 고소하는 망동까지 부리고있다.

남조선 각계에서 당국이 아이들의 안전을 무시하고있다는 분노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있는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땅우에 있는 숱한 《세월》호들, 불안과 공포를 자아내는 이런 위험한 건물들에서 어떻게 아이들이 맘편히 공부할수 있겠는가.

학교인가, 살인지옥인가

괴뢰당국이 축소하여 발표한데 의하면 지난 몇해동안 남조선의 학교들에서 발생한 살인범죄행위는 수십건, 폭행사건은 근 5천건에 달한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와 서울지역에서 그 비률이 제일 높다고 한다.

지난해 경상남도 진주시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불과 10여일사이에 학교폭력으로 2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한명은 학교건물계단에서, 한명은 기숙사에서 맞아죽었다. 피해자들은 다 신입생들이였다.

그들은 고등학교에 진학한지 두달도 못되여 야만적인 학교폭력의 희생물로 되고말았다.

남조선사회의 퇴폐적인 문화가 그 주요한 원인이다. 부산지역에만 하여도 학교주변들에 아이들의 정신육체적성장에 커다란 해를 끼치는 퇴폐적인 영업소들이 무려 4천여개나 있다고 한다.

괴뢰당국이 《대책》이니 뭐니 하지만 학교폭력문제는 해결되기는 고사하고 갈수록 심각해지고있다. 그러니 부모들이 어떻게 마음놓고 자식들을 학교에 보낼수 있겠는가.

반동적인 교육정책

남조선에서 괴뢰당국의 썩어빠진 교육정책에 대한 인민들의 분노가 터져나오고있다.

보수패당이 집권후 그 무슨 《교육의 새시대개척》을 광고하였지만 그 식이 장식이였다. 최근에 있은 여론조사에서 현 보수당국의 교육정책에 대한 지지률은 겨우 3.3%에 불과하였다.

남조선인민들은 괴뢰집권자가 사람들의 귀맛이라도 돋구던 자기의 공약들을 죄다 뒤집어엎었다고 울분을 토로하면서 괴뢰패당의 반동적인 교육정책을 《학생과 학부형의 삶을 송두리채 갉아먹고 교육현장을 황폐화시키는 정책》, 《교육현장을 리념갈등과 혼란의 란무장으로 만든 정책》으로 단죄하고있다.

분노한 인민들은 지금 죽음을 부르는 미친 교육으로부터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투쟁의 거리에 떨쳐나서고있다.

본사기자 허영민

끊임없이 비약하는 조선

오늘 조선속도창조의 불길높이 사회주의문명국건설에로 질풍같이 내달리는 우리 조국의 약동하는 모습을 보며 국제사회계가 경탄을 금치 못해하고있다.

몽골인민혁명당대표단 단장은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나서 조선에서 이룩되고있는 사회주의건설성과들을 목격하고 감탄을 금할수 없다고 하면서 격동된 심정을 이렇게 피력하였다.

《미림승마구락부, 문수물놀이장, 경상유치원을 비롯한 여러곳을 돌아보며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제도에 대하여 더 잘 알게 되였다.

현대적인 문화정서생활기지들에서 아무런 근심걱정없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있는 평범한 근로자들과 청소년들의 기쁨과 랑만에 넘친 모습은 참으로 큰 충격을 주었다.》

그러면서 그는 조선의 현실은 진보적인류의 미래가 사회주의에 있다는것을 여실히 보여주고있다, 사람중심의 위대한 사상,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모든것이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는 나라, 조선의 사회주의는 가장 훌륭한 사회제도이다라고 격조높이 말하였다.

브라질공산당 에스삐리뚜 싼또주위원회 조직비서는 우리 나라에서 인민들의 정치적권리와 생존권이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확고히 담보되여있으며 특히 전반적 12년제의무교육제와 무상치료제 등의 혜택으로 누구나 행복한 생활을 누리고있는데 대하여 찬양하고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조선에서는 전체 인민이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쳐 자기가 선택하고 건설한 사회주의제도를 수호하기 위해 적극 투쟁하고있다. 조선의 이 놀라운 현실은 위대한 수령들이신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이룩된것이다. 김정은동지를 모신 조선의 미래는 끝없이 밝고 창창하다.》

민주꽁고주체사상연구 전국위원회 서기장은 조선방문은 보지도 못한 하느님을 열렬히 숭배하던 한 신자가 하느님을 만나본것과 같은것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다.

《조선의 현실을 처음으로 실지 체험한 나로서는 지금 우리가 사는 세계와는 다른 신선의 나라에 다녀온 기분이다.

조선에서는 누구나 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친어버이로 모시고있으며 그이를 열렬히 따르고 흠모한다.

전체 인민이 령도자의 두리에 굳게 뭉친 일심단결의 참모습은 조선의 힘을 당할자 이 세상에 없다는것을 보여주었다.

조선의 현실은 인구와 령토는 비록 작아도 위대한 수령의 령도를 받는 나라가 강대국으로 될수 있으며 탁월한 수령의 두리에 전체 인민이 한마음으로 뭉칠 때 못해낼 일이 없다는것을 세계에 보여주고있다.》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천만군민이 하나로 굳게 뭉치여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길을 따라 신심드높이 전진하고있는 우리 나라를 소개하는 강연회들이 다양한 주제로 진행되고있다.

빼루 로동자, 농민, 학생인민전선, 빼루전국인민뿔럭, 빼루인민민주단결의 공동주최로 빼루의 리마에서는 《사회주의국가 조선》이라는 주제의 강연회가 진행되였다.

여기에서 빼루 로동자, 농민, 학생인민전선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평양방문과정에 주체사상으로 일색화되고 전체 인민이 굳게 단결된 조선의 현실을 목격하였다. 또한 자주정신이 강한 조선인민의 영웅적투쟁과 행복한 생활모습을 직접 보았다.

조선은 주체의 상징이며 진정한 사회주의국가이다.

조선은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우리모두가 따라배워야 할 귀감이다.》

빼루전국인민뿔럭 위원장은 현시대는 단결이 없이는 승리할수 없는 새로운 변혁의 시대이다, 사회적정의와 진보를 위한 투쟁에서 김일성주석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전체 인민의 일심단결을 이룩한 조선의 모범을 따라배워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던 로씨야 하바롭스크변강 주체사상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사회주의건설경험연구협회 대표단 단장은 귀환강연회에서 조선은 전체 인민이 령도자의 두리에 굳게 뭉쳐 자기가 선택한 길을 따라 변함없이 나아가는 독특한 사회주의국가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남의 도움보다 자기의것에 의거하여 자체의 힘으로 모두가 다같이 잘살며 더 빨리 전진하려는 지향이 강한것이 이 나라의 특징이다.

조선에는 사회생활의 모든 령역에 주체사상이 철저히 구현되여있다.

오늘 주체사상을 적극 따라배우고 널리 연구보급하는것은 세계적인 추세로 되고있다.》

계속하여 그는 조선인민은 자기 령도자를 끝없이 흠모하며 어버이로 믿고 따르고있다고 하면서 조선인민이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금수산태양궁전과 만수대동상주변을 정성껏 깨끗이 관리하고있는 모습을 이번 방문기간에 직접 목격할수 있었다고 격동을 금치 못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조선은 미국을 비롯한 서방나라들이 떠드는 불안정한 나라가 아니라 매우 안정되고 평화로운 나라이다, 거리와 마을이 깨끗하고 현대적인 건축물들로 조화를 이루고있는 수도 평양은 말그대로 공원속의 도시이다라고 체류기간 자신이 보고 듣고 느낀바를 그대로 터놓았다.

세계 각국의 출판보도물들은 날에날마다 몰라보게 면모를 일신시켜나가고있는 우리 조국의 참모습을 앞을 다투어 소개하고있다.

인디아신문 《보이스 오브 밀리언》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미국이 조선을 핵으로 위협하며 경제건설에 제동을 걸던 시대는 영원히 사라지게 되였으며 조선인민은 보다 안정된 환경에서 경제강국건설을 마음먹은대로 다그쳐나갈수 있게 되였다.

세계는 조선이 막강한 핵억제력에 의거하여 제국주의자들과 그 추종세력들의 전쟁위협을 무자비하게 짓부셔버리면서 사회주의강성국가를 훌륭히 일떠세우는것을 똑똑히 보게 될것이다.》

나이제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 전국위원회는 인터네트홈페지에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다.

《사회주의문명국건설을 다그쳐 21세기의 새로운 문명개화기를 활짝 열어놓아야 한다는것이 김정은령도자의 의도이다.

마식령스키장과 문수물놀이장,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과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 연풍과학자휴양소,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와 평양육아원, 애육원을 비롯하여 모든 건축물들은 김정은령도자께서 지니고 계시는 문명의 높이, 창조의 높이를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조선속도를 창조할데 대한 김정은령도자의 애국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지금 이 시각에도 조선에서는 끊임없는 비약과 혁신이 창조되고있다.》

세계의 각계각층 인사들이 토로한바와 같이 청춘의 활기와 생기에 넘쳐 힘차게 전진하고있는 우리 조국은 누구나 부러워하는 주체조국, 선군조선으로 만방에 이름떨치고있다.

세계는 보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발자취가 어리고 손길이 닿는 곳마다에서 천지개벽과도 같은 전변이 일어나고있는 우리 조국의 참모습을.

정녕 그것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온 나라 대가정의 자애로운 어버이로 모시고 사는 우리의 사회주의조국에서만 일어날수 있는 경이적인 현실이다.

림 원

로씨야, 수리아, 에짚트출판보도물들 글 게재

인류의 영원한 태양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서거 21돐에 즈음하여 로씨야, 수리아, 에짚트출판보도물들이 글을 게재하였다.

로씨야 이르꾸쯔크 인터네트홈페지 《이르꾸쯔크블로그스포뜨. 루》는 2일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담은 사진문헌들을 모시고 만경대고향집, 주체사상탑사진과 함께 《김일성주석의 서거 21돐》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글은 7월 8일에 즈음하여 조선인민뿐아니라 세계 진보적인민들은 탁월한 사상리론과 거창한 혁명실천으로 력사와 인류앞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 김일성주석의 생애를 감회깊이 회고하고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일성주석께서는 조선이 일제의 군사적강점밑에 신음하던 시기 가난한 농가에서 탄생하시였다.

10대의 어리신 나이에 혁명의 길에 나서신 주석께서는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창시하시고 혁명과 건설에 빛나게 구현하시여 그 진리성과 생활력을 만방에 과시하시였다.

장구한 항일무장투쟁으로 조국을 해방하신 주석께서는 조선로동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시였다.

김일성주석께서는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침략으로부터 나라의 자주권과 독립을 수호하기 위한 조국해방전쟁을 승리에로 령도하시였으며 전후복구건설과 여러 단계의 사회혁명을 현명하게 이끄시여 조선을 인민대중중심의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으로 전변시키시였다.

주석께서는 조선통일위업과 세계자주화위업에도 거대한 공헌을 하시였다.

정녕 김일성주석은 20세기를 대표하는 가장 걸출한 수령, 불세출의 위인, 인류의 대성인이시다.

주석께서는 비록 서거하시였지만 그이의 사상과 위업은 끝없이 이어지고있다.

로씨야신문 《올라지보스또크》, 하바롭스크변강인터네트신문 《제브리 데웨》도 위대한 수령님의 고매한 풍모를 칭송하는 글을 편집하였다.

수리아신문 《알 사우라》 5일부는 《김일성, 그이의 서거 21돐에 즈음하여》라는 제목의 글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올해 7월 8일은 김일성주석께서 서거하신 때로부터 21돐이 되는 날이다.

김일성주석께서 이룩하신 업적은 오늘도 전설처럼 전해지고있다.

김일성주석은 인류의 운명개척에 특출한 공헌을 하신 세계가 공인하는 위인이시다.

김일성주석의 한생은 언제나 인민대중속에 들어가시여 그들을 불러일으켜 만난시련을 이겨내고 기적을 창조하여 오신 투쟁의 력사이다.

조선인민혁명군이 국가적후방이나 정규군의 지원도 없이 일제를 타승하고 조국을 해방한것은 주석의 령도를 떠나 생각할수 없는 기적이였다.

김일성주석께서는 청소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침략을 물리치고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을 수호하시였다.

주석께서는 인민들과 고락을 같이하시며 조선을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으로 전변시키시였다.

주석의 령도밑에 조선에는 인민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고 모든것이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며 그들의 단결된 힘에 의하여 승승장구하는 독특한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되게 되였다.

김일성주석께서는 세계자주화위업에도 거대한 공헌을 하시였다.

에짚트신문 《알 마싸이야》 4일부는 《영원한 태양》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일성주석께서는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바치시였다. 그이에 의하여 조선에는 누구나 서로 돕고 이끄는 인덕의 대화원이 펼쳐지게 되였다.

김일성주석께서는 무한대한 포옹력으로 만민을 안아주시였다.

또한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의 식민지민족해방투쟁과 새 사회건설을 성심성의로 적극 지지성원하시였다.

태양이 영원하듯이 김일성주석의 사상과 위업은 길이 빛날것이다.

김일성주석은 인류의 영원한 태양이시다.

【조선중앙통신】

지역의 평화를 파괴하는 위험한 망동

지난 세기 두차례의 세계대전이 일어났던 유럽땅에서 또다시 새로운 세계대전이 터질수 있는 심상치 않은 기운이 감돌고있다. 로씨야와 미국이 주도하는 나토사이의 첨예한 군사적대결과 이로 하여 악화되고있는 유럽정세가 그것을 실증해주고있다.

얼마전 미국방장관 카터가 유럽을 행각하면서 이전 쏘련지역에 속해있던 나라들과 기타 동유럽나라들에 땅크와 장갑차, 포를 비롯한 중무기들을 배치하려는 미국의 계획을 공개하였다. 그런가 하면 유럽나라들을 로씨야와 당당히 맞설수 있는 수준에 올려세우기 위해 각종 지원을 줄것이라는 소리도 하였다.

이것은 로씨야국경가까이에 무력을 집중적으로 증강, 배치하여 군사적우세를 차지하고 이 나라를 힘으로 제압하겠다는것을 공개적으로 내비친것이나 다름이 없다.

더우기 스쳐지나보낼수 없는것은 미국의 무력증강이 이미전에 로씨야에 핵타격을 가할 사명을 지닌 지상기지미싸일들을 유럽에 전개할데 대한 계획이 발표된 상태에서 진행되게 된다는것이다.

미국은 로씨야와의 전쟁을 바라고있다. 미국은 의도적으로 정세를 극단에로 몰아가는 위험천만한 망동을 부리고있다.

로씨야가 미국에 군사적으로 강하게 맞서나가고있다.

서방의 군사적움직임에 대처하여 서부국경지역에 40여기의 대륙간탄도미싸일들과 최신형장거리고사로케트들을 배비하려 하고있다. 깔리닌그라드주둔 미싸일려단을 기동전술미싸일종합체 《이스깐제르—M》으로 재장비시키려 하고있다. 벨라루씨에 주둔하고있는 로씨야군도 강화하고있다.

지금 로씨야와 미국은 실제적인 군사적행동으로 넘어가고있으며 그것은 언제든지 물리적충돌로 번져질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있다. 이것이 그대로 현실로 전환될 경우 유럽나라들은 어차피 거기에 말려들지 않을수 없다. 이미 로씨야안전리사회의 한 고위인물은 동유럽나라들이 자기 령토에 나토무력을 끌어들이는것은 스스로 로씨야의 타격목표로 되는것을 선택하는것과 같다고 경고하였다.

유럽땅은 또다시 새로운 세계대전의 문어구에 들어서고있다.

유럽에서 사태가 이렇게까지 험악하게 번져지게 된것은 미국의 대로씨야전략과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중앙아시아지역과 중동에 대한 군사적지배권을 확립하고 나토의 확대를 통해 동유럽나라들을 저들의 세력권안에 끌어넣어 로씨야에 대한 군사적포위환을 형성하는것이 바로 미국의 대로씨야전략이다. 궁극에 가서는 로씨야를 군사적힘으로 제압하자는것이다. 이 전략실현을 위한 미국의 움직임은 새 세기에 들어와 본격적인 단계에 들어섰다.

극도로 악화되고있는 유럽정세는 국제사회의 커다란 우려를 자아내고있다.

세계 여러 나라의 분석가들과 대중보도수단들이 《나토무력이 마치도 전쟁개시를 기다리는듯이 로씨야의 주변을 맴돌고있다.》, 《로씨야국경부근에서의 미국의 군사적움직임은 로씨야를 크게 자극하고있으며 실제로 제3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질수 있는 지극히 위험한 행동이다.》라고 하면서 그 위험성에 경종을 울리고있는것은 우연한것이 아니다.

하지만 미국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저들의 목적실현을 위해 고의적으로 사태를 극단에로 몰아가고있다. 이것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고 군비경쟁과 군사적대결을 불러오는 결과만을 초래하게 될것이라는것은 불보듯 명백하다.

문제는 격화되고있는 유럽정세가 이 지역에만 국한된것이 아니라는것이다. 로미사이의 대결구도가 한층 심화되여 물리적충돌이 일어나면 온 유럽땅이 전쟁의 불도가니에 빠져들고 그것이 그대로 세계대전으로 번져질수 있다.

인류에게 참혹한 재난을 가져다주는 세계대전은 절대로 되풀이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은 평화를 지향하는 세계 진보적인류의 한결같은 념원이다.

리 학 남

《강대성》의 신화가 깨여진 력사적사변

6.25-7.27반미공동투쟁월간에 즈음하여 여러 나라에서 글 게재

6.25-7.27반미공동투쟁월간에 즈음하여 로씨야잡지 《쯤쏘몰스까야 쁘라우다 아비아》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상을 모시고 《조선전쟁에서의 교훈:미국의 힘은 만능이 아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였다.

잡지는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조선전쟁은 힘의 만능론을 떠드는 미국이 갓 창건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압살하려고 도발한것이였다.

전쟁이 일어날무렵 조선과 미국의 군사기술적력량은 대비조차 되지 않았다.

당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창건된지 2년도 안되였다.

조선의 정규군과 자위적국방공업은 너무도 청소하였다.

잡지는 미국이 조선전쟁을 일으키려고 이미전부터 그 준비를 다그쳤으며 전쟁이 간단히 끝날것으로 오산하고있은데 대한 사실자료를 렬거하고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조선반도에는 명백히 힘의 불균형상태가 조성되여있었다.

미국에 맞선다는것은 상상하기도 어려웠다.

그러나 그처럼 《강대성》을 과시하던 미국의 군사기술적우세도 자기 위업의 정당성을 자각하고 한사람같이 일떠선 조선의 군대와 인민을 당할수 없었다.

지난 조선전쟁은 미국의 《강대성》의 신화가 여지없이 부서져나간 력사적사변이였다. 침략전쟁사에 한번도 패한적이 없다고 우쭐렁거리던 미국이 조선전쟁을 도발한 때로부터 3년만에 정전협정에 조인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잡지는 조선전쟁에 수많은 병력을 들이밀었다가 쓰디쓴 참패를 당한 미국이 그때의 교훈을 망각하고 새 전쟁도발의 불을 지르려고 미쳐날뛰고있는데 대해 폭로하고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조선은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 리비아와 같은 나라가 아니다.

지난 조선전쟁에서 렬세한 무장장비를 가지고도 미국에 대참패를 안긴 조선은 전후 수십년간 미국과의 대결속에서 자위적국방력을 백방으로 다져왔다.

미국의 극단적인 핵위협에 대처하여 자위적핵억제력도 갖추었다.

오늘날 조선은 자기를 건드리는자는 행성의 그 어디에 있건 무자비하게 징벌할수 있는 핵보유국으로 위용떨치고있다.

미국은 이 엄연한 현실을 똑바로 보아야 한다. 만일 미국이 제2의 조선전쟁을 도발한다면 력사상 외부로부터 폭탄 한발 떨어져본적이 없다는 미국땅도 불바다에 처할것이다.

미국의 힘은 결코 만능이 아니다.

잡지는 주체사상탑 등을 보여주는 사진들도 함께 편집하였다.

* *

6.25-7.27반미공동투쟁월간에 즈음하여 나이제리아와 에꽈도르의 단체, 기관이 6월 25일과 30일 인터네트홈페지에 글을 올렸다.

나이제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 전국위원회는 《조선전쟁의 의미》라는 제목의 글에서 조선전쟁은 력사상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가렬처절한 전쟁이였다고 하면서 미국이 전쟁에 방대한 침략무력과 지어 국제적으로 금지된 세균무기와 화학무기까지 동원한데 대하여 폭로하고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그러나 기적이 일어났다.

모든 예상과 상식을 깨뜨리고 조선이 미국을 타승하였다.

조선의 빛나는 승리는 김일성주석의 천재적인 지략과 현명한 령도의 결실이였다. 즉시적인 반공격전략, 현대포위전의 전형창조, 강력한 적후제2전선형성, 적극적인 진지방어전 등 주석의 탁월하고 독창적인 전법과 전술에 의하여 미국은 태평양전쟁에서 입은 손실의 근 2.3배에 달하는 참혹한 손실을 보고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에 수표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다.

그때로부터 60여년의 세월이 흘렀다.

오늘의 조선은 조선전쟁당시의 청소한 조선이 아니다. 령도자의 두리에 전체 군대와 인민이 일심단결된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인 조선은 핵보유국, 인공지구위성제작 및 발사국으로 세계에 우뚝 서있다.

오늘 조선의 군대와 인민은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새 전쟁도발책동을 예리하게 주시하면서 미국이 끝끝내 불질한다면 그 기회에 행성에서 미국이라는 전쟁의 원흉, 악의 소굴을 송두리채 없애버릴 의지에 넘쳐있다.

과거 조선전쟁이 미국이 패배한 첫 전쟁으로서 미국의 내리막길의 시초를 열어놓았다면 새로운 조선전쟁은 인류력사상 미국이라는 또 하나의 제국의 종말을 가져올것이다.

에꽈도르 김정일도서관과 주체청년소조는 《대전해방전투》, 《미국은 왜 조선전쟁을 일으켰는가》 등 제목의 글을 게재하였다.

* *

6.25-7.27반미공동투쟁월간에 즈음하여 체스꼬신문 《쁘로스께욥스까 쁘라브다》가 얼마전 《조선에서의 미국의 야수적만행에 대한 보고서》라는 제목으로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조선인민에게 감행한 미제의 만행을 폭로한 국제민주녀성련맹조사단의 보고서를 게재하였다.

신문은 다음과 같은 머리글을 달았다.

미국은 언론들을 매수하여 자신을 《세계평화의 수호자》로 선전하고있다.

만약 평화의 기준을 전쟁과 폭격, 지역의 불안정조성, 다른 나라들에서의 자원략탈로 정한다면 미국은 가장 《평화애호적인》 나라로 될것이다.

자본주의언론들은 그자체가 개인소유에 기초하고있는것으로 하여 그 소유자들에게 복무한다.

따라서 언론들은 미국과 제국주의렬강들의 리익에 배치되는 모든것을 《악마》로 묘사한다.

지금 이들은 매일과 같이 사회주의조선을 헐뜯고있다.

그러나 조선은 단 한번도 다른 나라들을 핵무기로 위협하거나 침략한적이 없다.

반대로 미국은 자본주의적리윤을 위해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을 학대하고 살해하고있다.

그러니 실지 평화의 적은 누구인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아니다. 공화국의 정책은 가장 평화애호적이다. 조선은 엄혹한 경제제재속에서도 미국의 침략을 단호히 물리칠수 있는 사회주의나라이다. 조선인민은 굴하지 않고 자본주의와 견결히 맞서싸우고있다.

신문편집부는 자본주의선전을 무력화할데 대한 수많은 인민들의 요청에 따라 조선에서 감행한 미국의 야수적만행에 대한 국제민주녀성련맹조사단의 보고서를 게재한다.

보고서는 나치스들도 감히 자행하지 못한 상상조차 할수 없는 만행자료들로 작성되였다.

【조선중앙통신】

나라의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강경립장

이란무력 총지휘참모부 부참모장이 최근 한 통신과의 회견에서 군사시설들에 대한 외세의 사찰을 받아들이지 않을 자기 나라의 립장을 다시금 강조하였다.

그는 나라의 군사자료를 남에게 절대로 넘겨줄수 없다고 하면서 렬강들은 그 어떤 구실로도 이란의 군사기지들을 사찰할 기회를 얻지 못할것이라고 말하였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은 제재와 압력을 통하여 이란의 군사정보를 빼낼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였지만 그것은 한갖 망상에 불과하였다고 그는 조소하였다.

한편 이란국가복리리사회 위원장 아크바르 하쉐미 라프산쟈니가 6일 한 통신과의 회견에서 핵관련협상에 장애를 조성하고있는 이스라엘을 비난하였다.

이스라엘은 이란이 핵무기를 추구하지 않는다는것을 뻔히 알면서도 핵회담의 진전을 가로막기 위해 악랄하게 책동하고있다고 그는 폭로하였다.

그는 이스라엘의 목적은 핵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게 하여 국제무대에서 이란을 비난의 대상으로 만들려는데 있다고 까밝혔다.

미제는 두발가진 승냥이

우리 인민을 어떻게 학살하였는가

《조선사람은 미국사람과는 다르다. 따라서 인정이란 있을수 없다. 무자비하고 또 무자비하다.》

이것은 미극동군사령관이였던 맥아더가 1950년 9월 인천에 상륙하는 미제침략군놈들에게 내린 특별명령이다.

그에 따라 맥아더의 수하장성들도 줄줄이 살인명령을 내렸다.

《설사 그대들앞에 있는것이 어린애나 로인이라 할지라도 그대들의 손이 떨려서는 안된다. 죽이라! 그렇게 함으로써 그대들은 자신을 파멸로부터 구원하는것이며 또한 〈유엔군〉 병사의 책임을 다하는것이다.》, 《모든 도시를 모조리 폭격하고 모조리 불살라 지구상에서 없애버리라.》

련이어 내려지는 살인명령들에 따라 미제승냥이들은 더러운 침략의 군화발을 들이민 곳곳에서 무고한 조선인민에 대한 살륙만행을 거리낌없이 감행하였다.

조선인민을 대상으로 벌린 미제의 살륙만행은 참으로 악랄하고 잔인하였다.

조선사람들에 대한 살인행위에 광기를 부리던 한 미제침략군 병사는 후날 이렇게 토설하였다.

《면바로 면상을 갈기는것이 나에게는 마음에 든다. …나를 쳐다보는 부상자를 보고 그에게 총부리를 겨누면서 나는 참다운 자부심을 느낀다. …내가 면바로 관자노리를 겨누어 쏘고 발사의 결과로 두개골이 날아가고 눈알이 쏟아질 때 나는 더없이 가장 멋들어진 사격을 했다는것을 안다. …》

전선에서 우리 인민군대에 의하여 죽어너부러진 미제침략군 장교 에드워드 리치란자의 일기책에는 《크리스마스전야에 우리들의 중대는 18명의 조선로동당원을 죽였다. …사단장은 상을 주겠다고 약속하였다. …》라고 적혀있었다.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시기 미제침략군은 불과 두달도 못되는 기간에 신천땅에서만도 군인구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3만 5 000여명의 애국자들과 주민들을 휘발유를 뿌려 불태워죽이고 사지를 찢어죽였으며 산 사람의 눈알을 뽑고 머리를 톱으로 켜죽이는 등 가장 잔인하고 야수적인 방법으로 학살하였다.

미제침략자들은 인디안대학살에 미쳐날뛴 양키조상들을 닮은 그 포악한 본성을 조선전쟁에서 그대로 드러냈다.

미제야수들은 총살, 타살, 교살, 생매장 등의 방법은 말할것도 없고 쇠줄로 사람의 코와 귀를 꿰여 끌고다니다가 죽이고 눈알을 뽑고 젖가슴을 도려내여 죽였으며 머리가죽이나 몸가죽을 벗겨서 죽였다. 또한 입술을 도려내고 혀를 잘라죽였는가 하면 각을 떠서 죽이였다. 그것도 성차지 않아 사람을 톱으로 토막내여 죽이고 끓는 물에 삶아죽였으며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이고 장작더미우에서 불태워죽였다. 정말 듣기만 하여도 소름이 끼치고 치가 떨리는 잔인무도한 만행을 례사롭게 감행하였다.

그뿐이 아니다.

미제야수들은 애국자들의 머리가죽을 벗겨 그것을 《기념품》으로 가져가기도 했다.

그 살인만행들은 인디안들이 주인으로 있던 아메리카대륙에 쏟어들어가 《미개인은 떠나야 한다.》, 《죽은 인디안만이 좋다.》고 떠벌이며 인디안들을 멸족시키고 자기들을 죽음의 고비에서 구원해준 왕을 죽인 다음 그의 턱뼈까지 《기념》으로 가져가던 양키선조들의 피비린내나는 만행을 재현하는듯 하였다.

이처럼 미제살인귀들의 죄악은 세계전쟁사에서 찾아볼수 없는 인간대학살만행이며 반인륜적범죄행위였다.

하기에 1951년과 1952년에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던 국제민주녀성련맹조사단과 국제민주법률가협회조사단은 미군의 《대중적학살과 대중적고문들은 히틀러나치스들이 림시적으로 강점하였던 유럽에서 감행한 만행보다 더 혹심한것이다.》라고 폭로하였으며 미제가 조선에서 감행한 만행은 인류에 대한 가장 악랄한 도전이며 국제법에 대한 가장 란폭한 유린행위라고 단죄규탄하였다.

신천땅을 비롯한 우리 조국의 곳곳에서 감행한 미국의 극악한 대량살륙범죄는 아메리카양키들의 체질적인 잔인성, 미국의 식인종적본성을 그대로 드러낸 대표적이고도 전형적인 인간살륙범죄였으며 계획적으로 준비되고 미리 선택된 방법에 의하여 체계적으로 감행된 조선인민에 대한 미제의 멸족정책의 결과라는것을 뚜렷이 보여주었다.

그러나 미제침략자들은 그 어떠한 방법과 야수성으로써도 우리 인민의 불타는 승리의 신심과 백절불굴의 투쟁정신을 꺾을수도 정복할수도 없었다.

원쑤들의 야수적만행은 오히려 조선인민의 분노와 격분을 더욱 폭발시켰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한놈의 원쑤도 이 땅에서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복수전에 일떠섰으며 미제의 침략계획을 완전히 파탄시키고 전쟁의 승리를 이룩하였다.

그때로부터 세월은 멀리도 흘렀다.

미국은 아직도 지난 조선전쟁에서 패한 쓴맛을 교훈으로 삼지 못하고 우리의 남녘땅을 타고앉아 반공화국침략책동에 광분하고있다.

승냥이의 본성이 변하지 않듯이 다른 나라들에 대한 침략과 략탈을 본성으로 하고 인간살륙의 만행을 도락으로 삼고있는 미제의 야수적본성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만일 미제가 제2의 조선전쟁을 도발한다면 우리는 미제와 총결산을 하고 피맺힌 원한을 기어이 풀고야말것이다.

김 국 철

여러 나라에서 자연피해

—뛰르끼예의 에르주룸주에서 6일 산사태가 일어나 피해를 입었다.

주의 스키장에서 발생한 산사태로 2명이 부상당하고 도약대시설들이 못쓰게 되였다.

—로씨야의 크라스노야르스크변강에서 최근 산불에 의한 피해가 확대되고있다.

지난 하루동안에만도 산불면적은 500ha나 늘어나 그 면적은 5일현재 2 700ha에 달하였다.

많은 인원과 소방기재들이 동원되여 진화작업을 벌리고있다.

—인디아의 구쟈라트주에서 얼마전 무더기비가 내려 피해를 입었다.

무더기비로 34명이 목숨을 잃고 많은 건물들이 파괴되였으며 5 720여명의 주민들이 긴급소개되였다.

또한 주민세대들에 대한 전력공급이 중단되고 교통이 마비상태에 빠지는 등 혼란이 조성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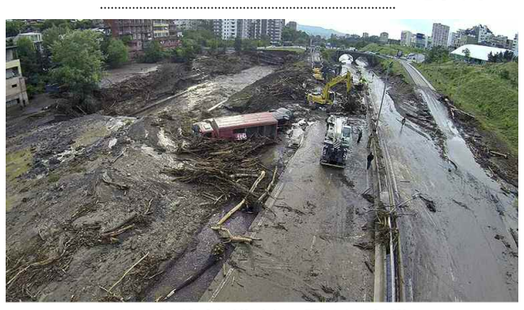
현지에서 구제조치들이 취해지고있다.

—필리핀의 중부지역에서 8일 태풍이 들이닥쳐 피해를 입었다.

폭우를 동반한 태풍으로 사망자가 발생하고 2 300명이 긴급대피하였다.

또한 도로들이 물에 잠겨 교통이 마비되고 학교들이 문을 닫는 등 혼란이 조성되였다.

【조선중앙통신】



그루지야에서 큰물피해

ㄱ-511093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특별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론설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집위원회